



12
7
2
+ 0
1
7
3



홍석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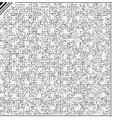
이 달의 표지 작가

유니버스(universe) 플랫폼 토이 작업을 시작으로 <이상세계(理想世界)>(gallery is, 2015), <smiley wave>(commonground toy republic, 2016), <outer space>(gallery is, 2017) 등 세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뮤직비디오, 콜라베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수의 그룹전 활동을 해왔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6, 7기 입주작가였으며, 현재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로 'astro circle'과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조소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플랫폼 토이는 동일한 형태의 조형성을 띤 토이 위에 자유롭고 다채로운 커스텀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플랫폼 토이인 'astro circle'은 2018 경기콘텐츠코리아랩-랩 메이커스 2기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만들어졌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astro circle의 뒷면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형상화해 나타냈고 전체적으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돌며 즐겁게 부유하는 플랫폼인 우주정거장의 조형성을 띤다. 또 상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현실 속 또 다른 공간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이 내 안의 우주는 때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보이는 모험의 공간이 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실제 없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의 의지와 실현적 이미지는 부유하는 자아를 유명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끈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현실 속 공간에서의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때가 있다. 이때 플랫폼 토이인 astro circle에 잠시 머물며 현실과 대면하거나 등 돌리며 한 바퀴 돌고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 짓는 형태가 아니라 현실 속의 작은 공간으로서 사회성을 부여하면서 자신을 투영한다. astro circle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잠깐의 대처로 유연히 또는 천진난만하고 익살스럽게 돌아가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캐릭터성을 띤다. 앞으로 키네틱, 동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캐릭터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1



2

표지 작품

〈astro circle〉 resin | 9×6×8cm | 2018~2019

- 1 〈astro circle(campbellsoup)〉 resin | 9×6×8cm | 2019
- 2 〈astro circle(typo series)〉 resin | 9×6×8cm | 2019
- 3 〈환호(acclamation)〉 canvas print | 336.4×118.9cm | 2019



3



08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홍석민

테마 토크

온라인 플랫폼은 무한 성장 중

06 칼럼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관관계

08 제작기

웹판소리 프로젝트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10 리포트 1

5G 시대,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플랫폼

12 리포트 2

확대되고 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현주소

사람과 사람

- 16 문화인 배우,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공효진
- 22 작가의 방 양문희 댄서 · 장수동 연출가
- 26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이응주 설화수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
- 30 진실 혹은 대담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 '작가들의 수다'
- 36 예술가의 밥그릇 나뭇잎 조각가 권오석
-
- 38 서울 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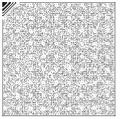
16

44



이슈 & 토픽

- 40 쟁점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한 갑론을박
- 42 쟁점 2 백남준 <다다익선> 복원 계획을 둘러싼 논란
- 44 화제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한국의 <휴먼 푸가>와 폴란드의 <The boy is coming>



48

공간, 공감

- 48 공간 1 제6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 50 공간 2 연희예술극장
- 52 공감 1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전곡 프로젝트>와 뮤지컬 <아이다>
- 54 공감 2 전시 <X사랑>과 <예술에 U+5G를 더하다>
- 56 공감 3 책 <사서>와 <사탄탱고>
-
- 58 예술적 상담소



64



SOUL OF SEOUL

- 60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하다 ②
무용가가 사는 집,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로 가다
- 62 서정민의 썰(說)
아이들에 대한 고찰
- 64 서울 건축 읽기
증산동, 1970년대 신흥주택 단지
- 66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조쉬 분 감독의 <안녕, 헤이즐>

WEBZINE +

- 70 웹진 [비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 72 웹진 [연극in] 월간 <여덟 갈피>
- 74 웹진 [춤:in] 현상과 관점에 '몸'을 부여하는 안무가, 허윤경

- 76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중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씨네21(주)
각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http://magazine.sfac.or.kr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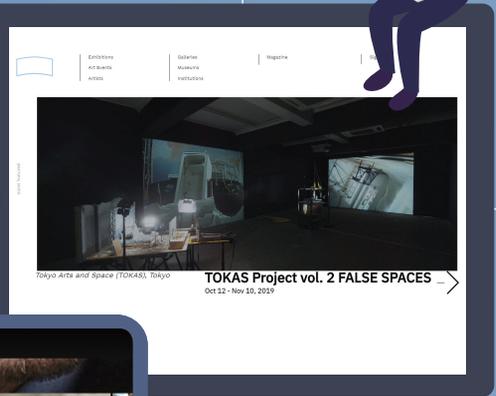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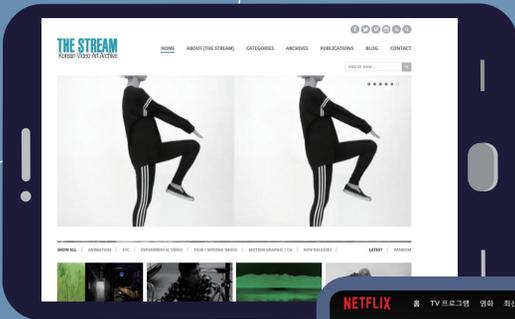
무한 성장 중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심지어 집 안에 앉아 전시와 공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열어준 신세계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개방성과 저비용 생산성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며, 공경함과 편리함을 무기로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있다. 11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던 기존 매체를 대체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살펴본다. 플랫폼의 개념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며 문화예술계 온라인 플랫폼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디스트림(www.thestrea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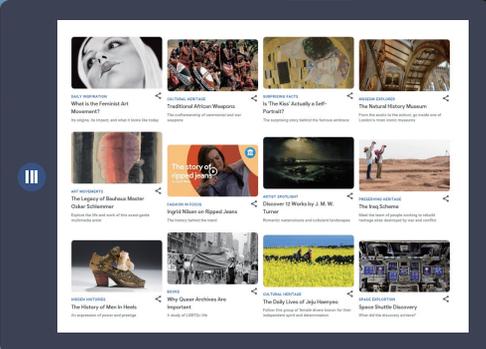


이젤(<https://eze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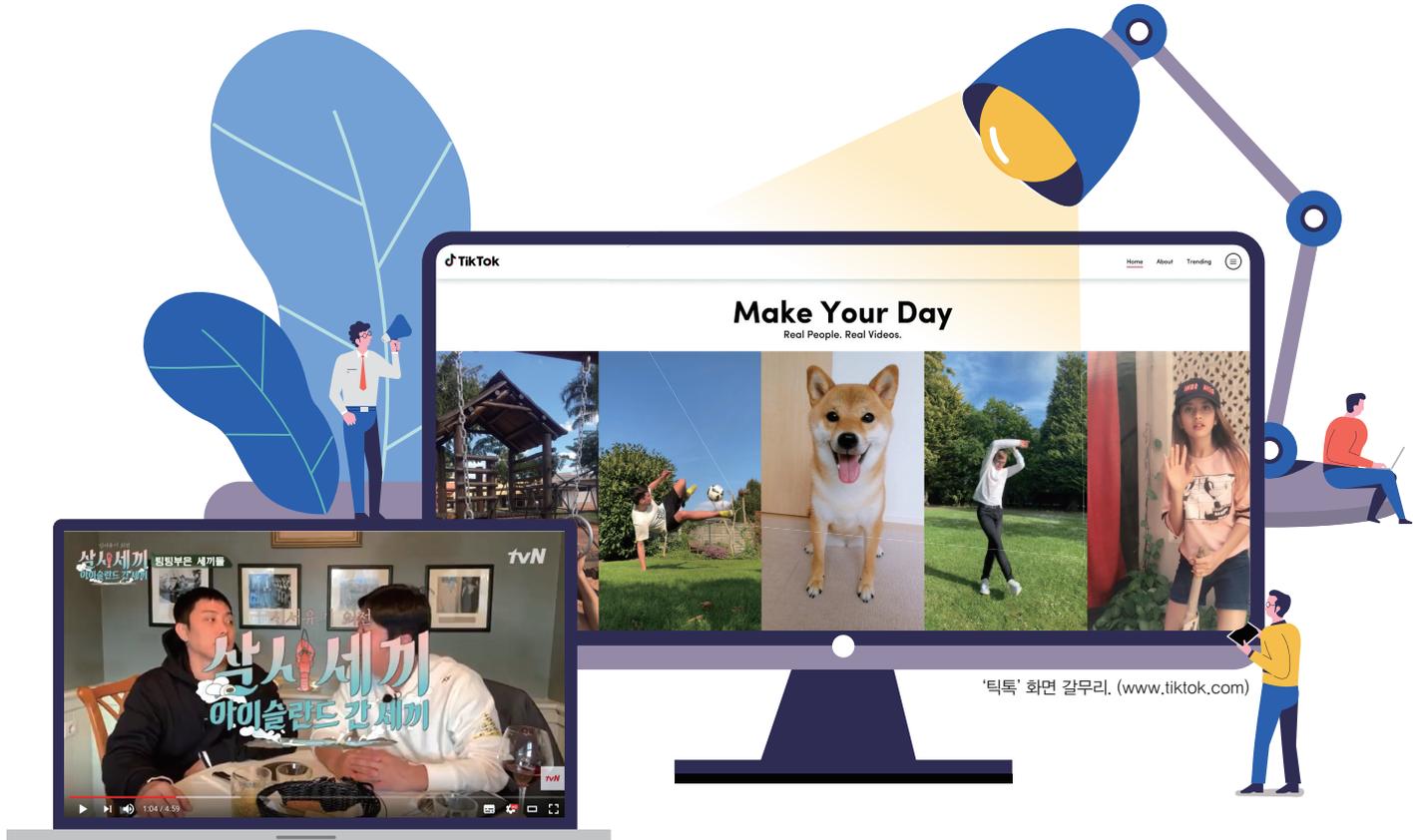
넷플릭스(www.netflix.com)

구글 아트 앤 컬처(<https://artsandculture.google.com>)



클래스101(<https://class101.net>)





tN <삼시세끼> 유튜브 화면 갈무리.

플랫폼, 세상을 바꾸다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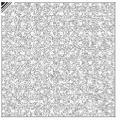


플랫폼의 세상이 오고 있다. 지식은 구글의 검색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고, 신문과 방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제 무언가를 구매할 때 상점을 찾기보다는 앱을 여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다. 심지어 음식도 앱을 통해 주문해 배달시키는 것이 당연해졌다. 플랫폼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 방식이다. 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환경, 도구, 인프라를 제공한다. 플랫폼이 매력적이라면 공급자도 소비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개방적이기에 그 성장 속도가 눈부시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당 영역은 한 단계 발전한다. 지식이 공유되고 미디어는 공정해지고 상거래는 훨씬 편해진다. 이제 그 플랫폼이 콘텐츠 영역에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만든다

과거 거대 자본을 필요로 했던 콘텐츠가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다. 유튜브가 우리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산자로 칭하는 변화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콘텐츠 생산이라는 영역에서 공급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라는 영역이 틀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과거 주류 매체에 의해 선택받지 못했던 B급 콘텐츠가 주류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라 칭할 수 없었던 ASMR이 인기 콘텐츠가 됐다. 공급자 시장을 플랫폼이 열어주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이 콘텐츠 공급 시장에 만들어낸 변화는 첫째,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든다는 것이고 둘째, 아무도 영역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에 새로운 상상과 창조가 가능하다. 이 콘텐츠 공급 측면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갖고는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니즈를 발현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과거 틀에 박혀 있었던 콘텐츠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공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플랫폼이라는 양면시장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으며 이제 콘텐츠라는 영역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콘텐츠라는 영역에는 아직 양면시장적 플랫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유한 땅덩어리가 존재한다. 바로 거대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역이다.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 아티스트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 영역에는 고전적 플랫폼의 개념이 적용된다. 고전적 플랫폼의 개념은 자동차 산업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소나타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소나타 버전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아의 K5도 소나타 플랫폼을 활용한다. 즉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과 기능을 설계하고 이를 다양하게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같은 콘텐츠는 이러한 고전적 의미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삼시세끼> 산촌 편, 어촌 편, 아이슬란드 편 등 하나의 포맷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장소에 적용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또한 아직 전형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도 시즌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히든싱어>, <비긴어게인>, <쇼미더머니> 등 음악방송을 중심으로 맹아를 보이고 있는 시즌제 역시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에 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 서비스는 보다 많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를 바란다. 플랫폼 방식의 콘텐츠 제작이 고급 콘텐츠에서도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의 성공은 기존 콘텐츠 제공자들을 유통사업자로 변신시키고, 이는 공급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디즈니가, 애플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와 같은 형

태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공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만큼 많이 공급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 공급이 가능한 고전적 플랫폼 방식의 콘텐츠 제작이 일반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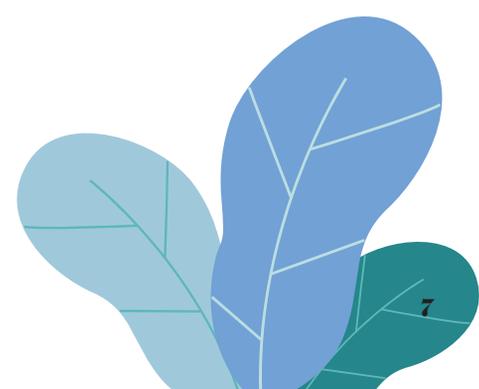
플랫폼의 변화와 성장은 어디까지?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고전적 플랫폼의 개념으로 생산 과정에서 공유되는 인프라의 개념, 두 번째는 양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두 번째 양면시장의 플랫폼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콘텐츠 영역에서는 두 가지 플랫폼의 개념이 모두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콘텐츠가 저렴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틱톡'으로 알려진 중국의 단영상 플랫폼 '더우인'(抖音)의 창업 스토리를 보면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가 어디까지 변화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와 성장의 헤드룸(Headroom)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생산력은 이미 극에 달했고 전쟁, 기아, 질병 등 생존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가 유일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생활의 질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생활의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이 무엇을 먹을지, 어떤 것이 좋을지, 이 옷이 예뻐서 등의 선택으로 낭비되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낭비 또한 많아지고 있다. 더우인은 젊은 사람들의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촬영 후 바로 플레이, 클릭 없는 재생, 그리고 전체 화면을 사용하는 15초짜리 짧은 영상 서비스를 출시했다.

_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张一鸣)

글 이승훈_네모파트너즈 대표 파트너, 가천대 에너지IT학과 부교수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 생경한 콘텐츠의 탄생

웹판소리 프로젝트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플랫폼의 시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지금, 한국의 전통을 화두로 한 웹판소리 프로젝트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이 진행되고 있다. 김탁환 작가의 <이토록 고고한 연애>를 원작으로, 작창된 판소리가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판소리가 생경한 전 세계 시청자에게 이 콘텐츠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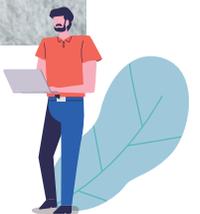
구글의 알고리즘, 그리고 글로벌 OTT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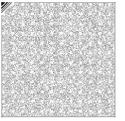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왕은 다름 아닌 ‘고객’이다. 아마존과 구글은 고객의 온라인상의 다양한 행동 패턴과 시청 습관에 기반하여,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한다. 고객들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는 그들의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은 과거 신문의 지면, 공중파의 황금시간대를 민주화·개인화시켜버렸다.

민주화되고 개인화된 나만의 플랫폼에 유튜브는 어떤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노출시킬까? 유튜브의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고객의 콘텐츠 시청 시간, 콘텐츠의 공유 횟수, ‘좋아요, 싫어요’의 숫자 대비, 댓글의 긍정성 여부 등 정량·비정량 데이터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유튜브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좋은 콘텐츠로 판단된 콘텐츠들 틈새로 광고비를 지불한 기업의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노출 대비 클릭 수 및 시청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과금한다. 때문에 기업 역시 목표한 고객층과 호흡하며 스토리텔링과 공감력을 갖춘 브랜드 콘텐츠를 기획하지 않으면 광고비의 R.O.I(투자 대비 수익률)를 맞출 수 없다. 고객 중심의 프레임워크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구글의 알고리즘은 광고주와 콘텐츠 공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것을 강제한다. 시



- 1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포스터 콘셉트.
- 2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작창 녹음 현장. SBA 미디어 콘텐츠센터 5층.
- 3 최용석 명창과 김효찬 작가가 출연한 서울문화재단 스팍TV 유튜브 콘텐츠 촬영 현장. SBA 미디어 콘텐츠센터 6층.





청자의 폭과 시청 시간은 늘어나고, 유튜브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한국이다.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코드커팅(유료 방송 시청자가 가입을 해 지하고 인터넷 TV, OTT(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상징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인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넷플릭스·아마존 등 기존 강자와 더불어 페이스북·구글 등 플랫폼사, AT&T 등 이동통신사, 디즈니 등 전통 콘텐츠 사업자까지 모두 OTT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국내 방송사와 통신사들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토종 OTT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그리고 팬덤 문화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과잉의 시대에, ‘한국의 전통’이라는 화두를 동시대적 트렌드(매체와 콘텐츠의 포맷의 관점에서)와 결합시켜 전 세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기획은 위험해 보이지만 매력적이다.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의 부편집장 데릭 톰슨은 〈히트 메이커스〉라는 저서에서 세상을 사로잡는 히트작의 성공과학은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 불안과 이해라는 양극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웹판소리 프로젝트 역시, 청계천 수표교의 달문과 판소리, 모션 그래픽 노블과 유튜브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해 만들어낸 ‘생경함’이 기획의 시작이 됐다. 김탁환 작가의 〈이토록 고고한 연애〉를

각색한 작품으로, 작창된 판소리가 내러티브 전달의 축을 이룬다. 판소리 리듬과 동기화된 일러스트 이미지는 의성어, 의태어, 따옴표 등 전통적인 그래픽 노블의 요소들과 함께 극적 긴장감을 더한다.

‘끝까지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리의 삶’이라 요약할 수 있는 달문의 휴머니티는 청계천의 수표교나 동대문의 인삼 가게로 상징되는 18세기 영조 시대 한양의 거리 냄새와 그 곁을 같이한다. 20세기 문학의 구도자이자 사상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이야기했던 원시적 자유로움과 휴머니즘이 지중해 남부의 크레타 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다.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해석되고, 향후 AR, VR 등 새로운 포맷을 포용하며 동시대적 공간의 가치를 더하는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왕인, ‘고객’의 팬덤 구축이다. 이지영 교수는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라는 저서에서 “방탄현상은 비중심화된 리즘적 체계를 보여준다. 이 체계는 거대 자본이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미디어 권력 같은 단일한 권력적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미와 방탄은 어느 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서로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다. 아미 역시 방탄 팬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아무런 이해관계나 유사성도 없는 무수히 다른 뿌리줄기들의 연결접속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리즘적 체계는 구글의 알고리즘의 진화와 그 곁을 같이한다. 아미는 그야말로 군대와 같은 응집력으로 음원 구입뿐 아니라 스트리밍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 트위터 리트윗, 언어 번역, 라디오 방송 선곡 신청, 발표곡 분석을 비롯한 2차 콘텐츠 생산 등을 능동적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기저를 관통하고 있는 알고리즘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발적 협업의 시너지 효과’는 비단 온라인 플랫폼의 시대에 BTS와 아미, 구글의 알고리즘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토록 고고한 연애〉의 달문의 캐릭터와 삶으로 잉태되는 18세기 조선의 다양한 사건과 드라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멀리 떠난 달문을 생각하며 “가끔 그 방향으로 술이라도 한두 잔 놓을 순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극 중 박문수의 심정과 같은 어떤 뜨거움, 그리고 그것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 세계인과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도전이 곧 그것 아닐까?

글 이한중_GT Connect 대표이사 사진 제공 GT Connect 일러스트 김효찬

- 1, 3 공덕역 'U+5G 갤러리'.
- 2 홍세진 <링크(Link)>,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2018.



5G 시대,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플랫폼

'U+5G 갤러리' <예술에 U+5G를 더하다>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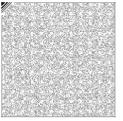
2011년 구글은 전 세계 70개국 1,00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의 명작을 스마트폰에서 붓터치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오픈했다. 이처럼 기술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플랫폼을 가능케 한다. 'U+5G 갤러리'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통신기술과 예술이 만난, 새로운 문화예술 감상 플랫폼이다.

갤러리에는 작품이 있고 그것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도 있다. 요즘 개념으로 보면 갤러리는 작품을 보려는 수요자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려는 공급자가 만나는 플랫폼인 셈이다.

플랫폼이란 무엇일까? 플랫폼이란 단어가 처음 쓰인 기차역으로 살펴보자면, 플랫폼은 이동수단인 열차와 목적지로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 플랫폼. 그럼 예술을 위한 플랫폼에는 전형적인 미술관이나 갤러리 외에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 거장의 작품이 거래되는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경매 플랫폼, 신진 작가들과 소비자들이 작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아트페어, 예술작품을 렌트할 수 있는 구독형 모델 등도 존재한다.

문화예술, AR을 만나 특별해지다

U+5G 갤러리에는 이전의 미술관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그 위치이다. 한적한 교외나 시내 중심 건물이 아닌 6호선 공덕역에 갤러리가 존재한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덕역 플랫폼의 스크린도어와 기둥, 환승 공간, 그리고 달리는 지하철에



2



3

아티스트 24명의 88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 감상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일반적인 갤러리와 달리, U+5G 갤러리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에, 공항철도로 환승하다 우연히 만나는 갤러리이다.

둘째는 작품의 형태이다. U+5G 갤러리에는 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구필화가 임경식 작가의 작품 <꿈을 꾸다>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작품 속 금붕어가 살아 움직인다. 조선시대 궁중무용인 춘앵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재현 작가의 <리슨 투 더 댄스>의 작품 속 무용수는 라이트 박스의 프레임을 벗어나 지하철에서 입체적인 퍼포먼스를 펼친다.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의 속도 덕택에 360°로 촬영된 무용수의 모든 몸짓을 돌려보고 확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포인트인 작품의 관람 형태에 영향을 준다. 무용의 예를 들면 객석의 관객들은 무대 위 퍼포머들의 섬세한 손짓이나 뒷모습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5G로 구현된 AR 작품은 무용수의 섬세한 손짓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원하는 각도에서 무용수의 몸짓을

360°로 볼 수도 있다. 공연장이라는 형태적 한계를 넘어 작품 관람의 주도권이 관객에게 주어진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관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확장성이다. 갤러리의 회화 작품들은 작가가 완성한 평면의 그림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물론 보는 이의 해석에 따라 이야기는 끝없이 확장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가가 붓을 놓은 곳에서 멈춰 있다. 하지만 U+5G 갤러리의 작품들은 AR 기술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더욱 명징하게 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홍세진 작가는 청력을 잃었지만 자신이 본 세상의 소리를 그리는 화가이다. <링크(Link)>는 그가 본 세상을 그린 작품으로, AR 기술로 관람객들이 듣고 볼 수 있는 소리와 움직임을 부여하여 작가의 의도를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다른 예로 구필화가 인박정 작가의 <또 다른 시선>이 있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슬픔, 기쁨, 행복과 같은 감정을 대상의 몸짓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작가는 전시를 위해 새롭게 몸짓을 그렸고, 거기에 AR 기술을 더해 작가가 상상했던 감정의 몸짓을 완성했다.

어떤 이들은 보는 이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이라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서로 다른 대중들이 모이는 지하철에서, 쉽게 공감이 가는 작품으로 문화예술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상으로 들어온 문화예술

5G 기술로 구현된 U+5G 갤러리는 이전의 문화예술 플랫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요즘 갤러리이다. 바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 대비 미술관의 수도 부족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삶의 여유도 부족하다. 미술관도 부족하지만 사람들도 시간이 없다. 이런 점에서 U+5G 갤러리는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곧 자연이라는 화가의 붓질로 산야가 물들기 시작할 것이다. 미술관이라는 전통적인 플랫폼도 좋고 새로운 개념의 U+5G 갤러리로 좋다. 바쁜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로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가을이 되면 좋겠다.

글 · 사진 서경중_HS에트 CREATIVE DIRECTOR 사진 제공 LGU+

온라인 플랫폼 전성시대



확대되고 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현주소

최근 <신서유기6>의 외전으로 제작된 tvN의 <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는 5분 편성으로 화제를 모았다. 5분은 사실상 예고편이었고 20여 분의 풀 버전은 유튜브의 '채널 나나나'를 통해 방송했다. 유튜브에 티저 영상을 올리고 본 방송은 TV로 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파격이었다. 올해 초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더블 네거티브: 화이트 큐브에서 넷플릭스까지>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존재하는 작품을 역으로 화이트 큐브 안으로 가져오는 실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보조 역할을 하던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새 오프라인을 넘어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온·오프를 넘나드는 온라인 플랫폼 강자

세계 최대 OTT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제작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 넷플릭스 자체 제작 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데 이어 2019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외국어영화상, 감독상, 촬영상을 수상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불리는 자체 제작 콘텐츠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3년 방영한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영화 <블랙미러: 밴더스내지> 등 신선한 접근 방식과 내용으로 차별화한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워너미디어가 2020년부터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NBC유니버설도 2021년부터 넷플릭스 구독자 시청률 1위의 <오피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좋은 콘텐츠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17개 글로벌 시장에서 매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옥자>, <킹덤>처럼 한국과 제작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구글은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htt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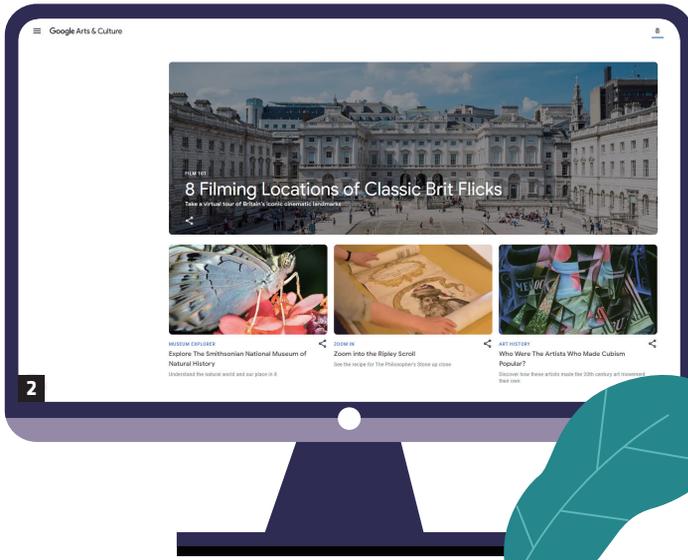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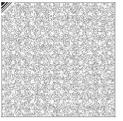


artsandculture.google.com)를 통해 전 세계 1,800개 이상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온라인상에 구현해놓았다.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작품의 디테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유튜브는 오프라인에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유튜브 스페이스(YouTube Space)'를 설립했다. 2012년 런던에 처음 문을 연 이후 베를린, 뉴욕, 뭄바이 등 세계 주요 도시 10곳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제작 시설을 갖추고 이벤트, 워크숍 등을 열어 창작자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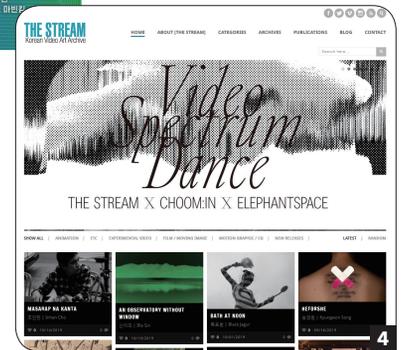
대형 포털 사이트의 꾸준한 창작지원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 네이버도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문화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아티스트 간의 협업을 적극 시도하는 방식으로 창작자를 지원해왔다. 네이버의 창작지원과 연계한 플랫폼의 특징은 창작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한다는 점이다.

'헬로! 아티스트'는 신진 시각예술 작가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가능성 있는 젊은 시각예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직접 이야기하며 대중과 가까워지게 하자는 취지로 네이버문화재단



- 1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로마>.
- 2 구글 아트 앤 컬처.
- 3 온스테이지X 'Sound Play' 포스터.
- 4 더 스트림.



이 기획했다. 2013년 6월 시작해 6년이 지난 시점에도 격주로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작가 인터뷰, 작품 이미지, 전문가 해설 등을 통해 회화, 설치미술, 사진, 영상 등 158명(2019년 10월 기준)의 작가와 작품을 세상에 알렸다. 소개를 원하는 작가는 이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격월로 회의를 진행해 작가를 선정한다. 올해 초부터는 네이버의 온라인 창작 플랫폼 '그라폴리오'로 콘텐츠 영역을 확장했다.

'온스테이지'는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최장수 플랫폼 중 하나이다. '숨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콘셉트로 매주 한 팀의 인디 뮤지션을 발굴해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한다. 록, 힙합, 크로스 오버,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409팀과 1,286개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2018년 8월 기준)가 쌓여 방대한 인디 뮤직 아카이브도 겸한다. 2011년 7월 소개한 '잠비나이'와 2012년 8월 소개한 창작 국악 밴드 '고래야'는 이제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 8월부터는 뮤지션의 음악 자체에 집중한 '온스테이지 2.0', 뮤지션과 '헬로! 아티스트' 작가 등 다른 분야 아티스트 간의 협업 무대를 보여주는 '온스테이지X'로 진화 중이다.

'클래식 스타리크'는 온라인 기반으로 열린 최초의 콩쿠르이다. 네이버와 유니버설뮤직코리아가 공동 기획했으며 참가비 없이 2004년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콩쿠르 과정 중 예선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으며 지정곡과 자유곡 영상을 본인이 직접 올리는 방식이었다. 예선에서는 피아노 42명, 성악 74명 등 총 116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본선과 결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본선 경연을 거쳐 피아노 6명, 성악 8명, 총 14명이 올라간 최종 결선은 네이버TV의 '네이버 공연'과 V 라이브의 'V Classic' 채널을 통해 연주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후 공동 우승을 차지한 피아노의 김준호와 이재경, 성악의 염정재와 정민성, 4명의 음원이 2018년 11월 말 발매되었고, <김정원의 V살롱콘서트> 등 오프라인 무대에서의 연주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10월에는 공동 우승자 김준호와 이재경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영 아티스트 포럼 앤 페스티벌 - 열혈건반>에 참여하는 등 전문 연주자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온라인 전시 겸 아카이브 플랫폼

문화예술로 좁혀보면 가장 눈에 띄는 플랫폼은 시각예술 분야다. 오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가 뜸해지는 수많은 플랫폼 속에서 오랜 기간 운영하며 상당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온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더 스트림'(THE STREAM, www.thestream.kr)은 동시대 한국의 비디오아트에 관한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최초의 온라인 기반 콩쿠르, 클래식 스타리그



한갑산 네이버 창작자파트너십TF 콘텐츠매니저

클래식 스타리그를 최초로 시도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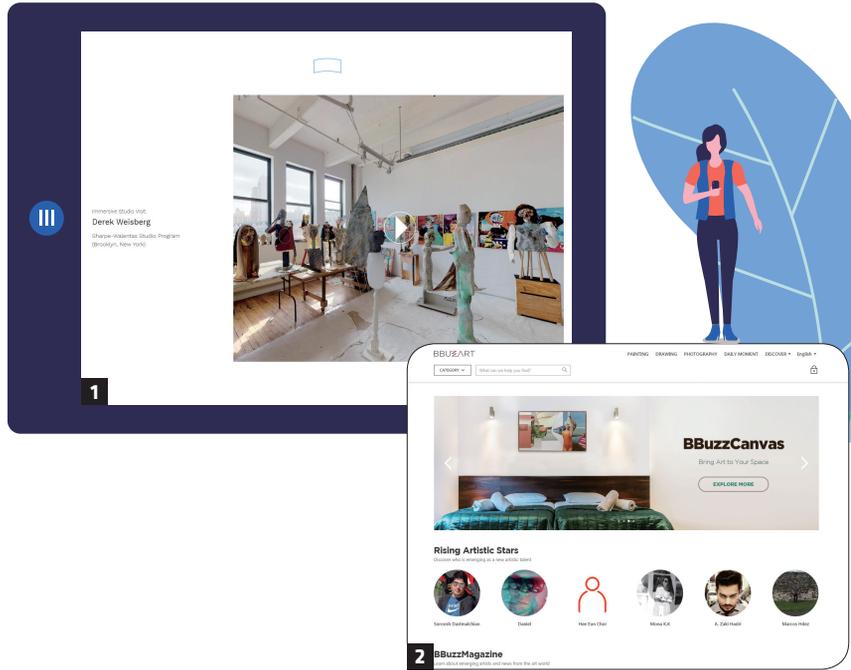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젊고 가능성 있는 연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데요, 그런 연주자들을 직접 발굴하고 싶었고, 네이버에서 연주자들의 연주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클래식 스타리그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최종 결선 온라인 생중계를 수만 명이 지켜봤어요. 현장이 아닌 온라인 생중계로 본 공연 관계자들이 우승자들뿐 아니라 결선 참가자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공연에 섭외하는 등 저희가 바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주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저희는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연주자들을 미리 접하고 언제 어디서나 연주를 감상할 수 있게 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회 대회는 어떻게 개최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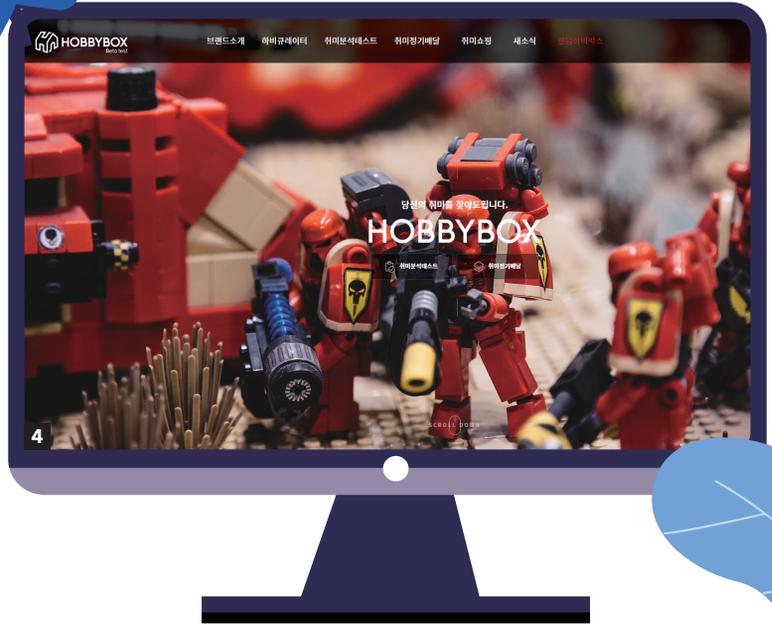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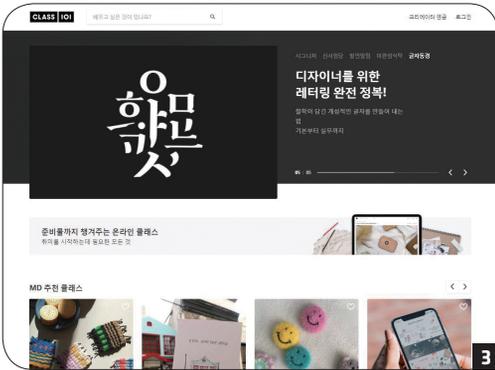
2회는 명칭을 '클래식 챌린지리그'로 변경해 12월부터 진행합니다. 피아노만 개최하되 1회보다 더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공자 중심의 프로 부문과 취미로 연주하는 아마추어 부문으로 나누고 더 많은 상금과 혜택을 제공해 연주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다른 악기로 연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있다. 미디어아티스트와 관련 기관, 연구자, 비평가, 영상 작품에 관심 있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미술관이자 홍보, 아카이브 역할을 동시에 하며 간접적으로 작가들을 지원한다. 필름,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등 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작가와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국문과 영문을 혼용 표기해 한국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겸한다. 가상현실(VR) 전시 콘텐츠 플랫폼 '이젤'(EAZEL, <https://eazel.net>)은 2015년 8월 설립된 이후 서울시립미술관, 뉴욕의 38개 갤러리 등 6개국 250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프라인 전시 콘텐츠를 가상현실 기술 기반으로 촬영해 보여주고 있다. 가상현실 전시 외에도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하는 '이머시브 스튜디오 비짓'(Immersive Studio Visit) 프로젝트를 진행해 작가들이 직접 사용하는 도구, 작업실에 놓인 책과 소품,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을 엿볼 수 있게 해놓았다. '버즈아트'(BBuzzArt, www.bbuzzart.com)는 전 세계의 신진 작가들이 평론가, 에이전시, 예술 애호가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분야, 컬러, 소재, 주제, 작품 크기, 가격대 등으로 분류된 작품을 둘러보고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만 3,000명의 신진 작가



- 1 이젤 '이머시브 스튜디오 비지트'.
- 2 버즈아트.
- 3 클래스101.
- 4 하비박스.



가 등록돼 있고, 등록된 작품 수만 4만 3,000점에 이른다.¹ 국내 반이 있지만 90% 이상이 미국, 캐나다, 유럽, 동남아시아 등 해외 이용자들이다. 최근에는 KT와 제휴해 신진 작가의 작품에 배경음악을 깔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기가지니 버즈아트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작지만 알찬 온라인 전용 전시도 있다. '갤러리 블랭크'(Gallery Blank, <https://galleryblank.blog.me>)는 순수예술 온라인 갤러리로 존재하나 실제하지 않는 전시공간을 표방한다. 2012년 3월 22일 첫 온라인 전시를 시작했으며 별도의 웹사이트가 아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용한다. 온라인 전시는 10여 점의 작품 이미지와 함께 서문, 인터뷰, 작업노트, 전시평문, 에피소드 등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숨은 작가 찾기 공모를 1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여가생활을 도와주는 스타트업

온라인으로 취미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플랫폼도 뜨고 있다.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취미를 찾아주고 준비물까지 챙겨주면서 방구석 귀차니스트들의 여가생활을 바꾸는 중이다. '하비박스' (<http://hobbybox.life>)는 취미 분석 테스트를 통해 18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취미와 하비박스 종류를 찾아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형, 창작형, 감상형, 오락형, 분석형 중 하나로 큐레이션한 취미상자를 선택하면 월 1회 배달해준다.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 미술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취미를 찾아주는 하비큐레이터로 참여해 매달 새로운 콘셉트로 하비박스를 꾸민다. '클래스101'(<https://class101.net>)은 공예, 요리,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강의하는 동영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취미 플랫폼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만 있는 문화센터인 셈이다. 강좌 개설을 원하는 크리에이터와 커리큘럼을 같이 구성하고, 수강 신청을 한 수강생들이 수업료를 지불하면 준비물 키트를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유튜브와 차별화했다. 2018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반 만인 2019년 9월까지 300개 이상의 클래스가 개설됐고 누적 방문자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박막레 할머니,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포함해 3,2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활동한다.²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자료·사진 각 웹사이트

¹ 참고: 이투데이. [청춘반란 (2)] 신세은 버즈아트 대표 "신진 미술가 발굴, 대중과 연결". 2018. 6. 11. www.etoday.co.kr/news/view/1630650
² 참고: 한국경제. 클래스101 "강의 영상에 준비물도 제공... '소확행'족 사로잡았죠.". 2019. 9. 3.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374061





두렵더라도 가야 하기에

배우,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공효진

배우 공효진이 지난 10월 10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디자인포럼2019' 무대에 올랐다. 지구 환경과 미래 인류의 삶에 대해 세계적인 명사들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서, 'Do We Need Another Planet?'(우리에게 다른 행성이 필요한가?)이라는 철학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첫 번째 기조연사로 나선 것이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과 배역을 그야말로 '물아일체'의 경지로 끌어내 마침내 실존 인물화하고야 마는 이 천생 배우는, 어찌자고 이 무대에 덜컥 올라 떨어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게 된 걸까.

마이크를 쥐 배우의 손에 잔뜩 힘이 실렸다. 1,000여 명 관객의 눈길이 배우에게로 향했다. 긴장감 역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배우는 연기할 때와 같은 톤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웃음)

겉내고 모른 척하기엔, 환경문제는 내 인생의 주제

2019년 10월, 배우 공효진은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중이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를 통해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동시에 휘어잡는 데 성공하며 20년째 현재 진행형 톱 배우로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빠듯한 드라마 제작 일정을 무려 하루씩이나 비워두고 포럼 무대에 오르기가까지, 그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아트페어 ‘아트바젤’이 열린던 3월, 홍콩을 방문한 그는 갤러리스트 친구와 함께 서구풍의 M+박물관을 찾았다. 긴 곱슬머리를 늘어뜨린,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풍성한 실루엣의 트렌치코트에 디올의 새들백을 무심하게 둘러맨 옷맵시에서, 몇몇 관람객들은 금세 그가 ‘패셔니스타’ 공효진임을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년째 그의 ‘팬’을 자처하는 기자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헤럴드디자인포럼에 기조연사로 나서주세요. 배우님이라면 올해 주제에 대해 많은 대중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자)

“저도 환경문제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 함께 의견을 나눠봐요.” (배우)

그렇게 시작된 ‘기자의 제안’은 4개월 이상 ‘배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다림이 계속되도 괜찮았다. 공효진이라면, 이 주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팬이라면 이 배우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배우는 결심했다. 무대에 서기로. 카메라 앞에서보다 더 떨리는, 그래서 이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자신의 SNS에 “얕던 이 빠짐”이라고 털어놓을 정도로 긴장했던 그 무대에 기어올라갔다. “제가 환경을 걱정하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방송에서 그런 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환경운동가도 아니니까요. 제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회용품 쓰는 제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SNS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 무덤을 파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겉내고 모른 척하기엔, 환경문제

는 제 인생의 주제인걸요. 아 참! 환경운동가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진정한 ‘운동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겠죠.”

세계적인 아트·디자인계 명사들과 함께한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그저 연기만 잘하는’ 것이 한국의 배우들이 별 탈 없이 연기 생활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20년 차 배우이기에, 환경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던지는 짐작할 만하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이제 막 서른이 되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 그는 <공책>(2010)이라는 제목의 환경 에세이를 출간했다. 지금이나 9년 전이나 그의 고민과 번뇌는 그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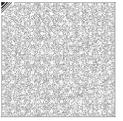
“물래 껌 종이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촬영장에서 일회용품에 담긴 도시락을 먹고 슬쩍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 있고, 사진까지 찍혀 네티즌에게 지적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 혼자선 정말 별것 아닐 수 있는 일들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말 큰 일을 낼 수 있다고 믿게 됐다.”

—<공책> 중

트렌드세터, 패셔니스타, 혹은 ‘공블리’ 같은 수식어가 나이의 앞서리 숫자가 바뀌도록 변치 않고 따라붙는 이 배우는 이미 서른이라는 푸른 나이에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추구하는 삶 사이에서의 가치 충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다. 그럼에도 그때의 고민을 담은 책이 어떤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었음을 믿는다.

“저도 언니처럼, 누나처럼 환경에 관심이 생겼어요’라거나, ‘습관처럼 하는 소소한 행동들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저보다 더 많이 발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때 그렇게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심스럽게 냈던 책이 헛되진 않았구나 생각해요.”

사워는 10분 만에 물로만 끝내고, 수건은 여러 번 쓴 후 마지막엔 반려동물의 목욕 수건으로까지 ‘재활용’한 다음 세탁해 물을 아끼고, 또 플라스틱 주스병에 붙은 비닐은 따로 떼어 분리하고, 우편 청구서의 주수란에 붙은 비닐도 일일이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리수거의 ‘달인’이기도 한 그가 강박적으로 애쓰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은 최근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슈퍼매직팩토리’(Super Magic Factory)를 통해서다.



'헤럴드디자인포럼2019'에서 기조연설 중인 배우 공효진

“저의 소명과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생길 수많은 꼬리표라든지, 저의 편리를 포기해야 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너무나 예민하게 일상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슈퍼매직팩토리’의 리더가 되는 일, 업사이클링 그 이상의 가치

2년 전의 일이다. 불현듯 연기 생활에 무력감을 느끼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선언했다. 그러나 집에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었다. 사방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TV가 켜져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몰라보는 사람보다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문득 두려웠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 내가 사랑하는 내 일에 이제 나태해진 건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렇게 발리로 떠났다. 친구 부부가 사는 곳 인근에 세를 얻어 ‘한 달 살기’를 시작했다. 먹고 자는 일 외에 딱히 하는 일도 없었고, 인터넷은 당연히 되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새소리를 듣는다가, 친구가 아이를 키우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며 문득 연기 말고 내 안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명’이라고 까지 여기며 품어왔던 내 안의 이슈, 그것은 환경문제였다.

“환경문제에 배우로서 제가 가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이 제게 붙여준 수식어, ‘패셔니스타’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패셔니스타’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유행처럼 번진 ‘패스트패션’ 대신, 사람의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간 패션, 이른바 ‘장인정신’이 담긴 ‘슬로패션’으로, 적어도 ‘패셔니스타’ 공효진이라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패션계의 트렌드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쉽게 찍어낸 옷들일수록 싸게 팔



1 2

리고, 싼값에 소비한 옷들이 더 쉽게 버려지는 ‘소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앞장서는 ‘트렌드세터’ 공효진의 애틀티드를 자신만의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큰돈을 주고 산 좋은 옷일수록 쉽게 버리지 않고 아껴 입을 대중의 심리를 겨냥하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과도 유사하다. 공효진은 이를 ‘업사이클링’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에서 ‘마법’이라는 뜻을 가진 ‘매직’을 골랐고, 제작하는 일까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싶은 마음에 ‘공장’이라는 뜻의 ‘팩토리’를 붙였다. ‘에코’나 ‘웰빙’처럼 뻘한 수사로 프로젝트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슈퍼매직팩토리’를 규정하고, 그는 이 업사이클링 그룹의 ‘리더’를 자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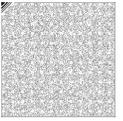
그러나 ‘선의’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임에도 일부 대중으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로 시작해서, ‘도대체 그게 뭐냐(별로라는 뜻), ‘이 뽀빠뽀빠한 자수가 뭔데 이렇게 높게 가치를 매기느냐’, ‘새 제품에 자수 놓아 파는 것 아니냐’, 혹은 ‘홈집 있는 상품을 왜 더 비싼 가격에 파냐, 그리고 ‘너는 뭐냐’까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버릴 것, 이제는 가치가 없어진

것을 원래 지녔던 가치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유리를 녹여 다시 유리를 만드는 ‘리사이클링’과 달리, ‘업사이클링’은 기존과는 다른 매력을 부여해서 아예 새로운 제품(저에게는 작품이고요)을 만드는 작업이죠. 하지만 단순히 버려진 제품 하나를 업사이클링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 손으로 직접 힘들게 자수를 놓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로 인해 가벼운 소비 패턴과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도 마음을 다쳤다. 그래서 포럼 기조연사로 무대에 서야 하는, 10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두려웠고, 반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주위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걱정이 계속됐다.

그도 인터넷 쇼핑을 한다. 멀쩡한 걸 버리지 못하는 성격인 데다, 선물로 받은 박스들은 필요가 없는데도 ‘쟁여 두기’를 수년째 반복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필코 유용하게 쓸 것처럼 쟁여둔 것들이 결국 나를 압박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소모하는 삶에서 누적된 번뇌를 선한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갚기로 했다. 좀 더 자신의 몸을 고달프게 하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굳이.

“저희는 3명이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수를 딱 3명이 놓는단 말이죠. 주문 물량이 많을 때는 쪽잠을 자면서 수를 놓아도 힘들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놓아야 하고요. 저는 컴퓨터



- 1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 2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 3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슈퍼매직팩토리'의 제품들.
(출처_슈퍼매직팩토리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upermagicfactory))

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자수를 놓다가 '거북목' 증상이 왔어요. 일상 생활에서 통증을 느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자수는 손으로 놓아야 하는 것음.”

자각하고 용기를 내어 가능한 한 실천할 것

“슈퍼매직팩토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대중에게는 제가 이 브랜드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드는 일이면 드는 일이지, 버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 수를 늘리고 사업 규모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최근에는 비영리단체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건 패션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 패션 트렌드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한 성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또 계속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저의 선의가 반대로 읽힐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 끝까지 가볼 거예요.”

포럼 기조연사로 무대에 오르기 전날 저녁, 공효진은 이 같은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마치 비장한 결심을 위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는 듯했다. 그리고 연설을 위해 약 50분 분량의 사전 녹취를 보내왔다. 무대에서 못다 한 이야기. 무대여서 못한 이야기, 그리고 무대 이후 전해온 이야기를 통해 환경을 아끼는 '공효진의 소

명'을 들어보자.

“편리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나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편리를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찌고 저찌고...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한다면서 너는 왜 일회용품 쓰는 거니?'라는 질타가 저도 두려워요. 제 자신을 환경운동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고요. 저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어떡까요. '에이, 나는 못해'라고 포기하지 말고, 자각하고, 용기를 내어 가능한 한, 한 번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해보는 것 말이에요.”

“너무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이 무대에 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구를 위해 조금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그 시작을 이 무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명과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생길 수많은 꼬리표라든지, 저의 편리를 포기해야 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너무나 예민하게 일상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분들보다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실천하며 살고 있는 정도예요. 이걸 그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서 더 많은 용기를 내기 위해서예요. 이미 흠집이 생긴 물건들에 손길을 더하고 시간을 들여 새 숨결을 불어넣으면 이상하게 조금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볍게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슈퍼매직팩토리'의 시작이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걸!”

글 김아미_헤럴드 문화사업팀장, 헤럴드디자인포럼 디렉터 사진 백중헌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글은 한겨레신문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 게재됩니다.

국내 아프리카 춤의 선구자



양문희
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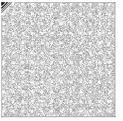
양문희는 한국체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다. 현재는 아프리카 공연예술 그룹 '포니케'의 리더로, 브라질 바테리아 댄스 그룹인 '라 퍼커션'에서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2017년부터 마포문화재단의 생활예술 브랜드 '꿈의 카니발'에서 '꿈의 아프리카 댄스'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쇼코이아 하모나이즈 아프리카>(2018), 연극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2018) 등의 안무에 참여했으며, <SBS 컬처클럽: 아프리카, POP이 된다>(2013) 등의 방송에 출연했다. 공연한 작품으로는 <서울 아프리카페스티벌>(2019), <아프리카 콜라보>(2019), <사물놀이: GRAND MASTER 이광수>(2018) 등이 있다. 최근 책 <아프리카에 춤추러 가자>(2019)를 발간했다.



“조금만 즐기세요. 최대한 웃으면서...”

아프리카 타악기인 켄베의 두드림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15명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레게 머리를 한 선생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한다. 상체와 하체를 같이 움직이라며, 때론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이들을 위해 손수 시범까지 선보인다. “짜잔짜잔, 따따판...” 걱정의 동작 덕분에 10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웃이 땀으로 적셔진다.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본 선생이 “잠시만 쉬고 하자”고 말하자마자 이들은 자리에 드러눕는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들은 저마다 곡소리를 질러댄다. 20대부터 40대까지 성인들로 구성된 이 수업의 제목은 아프리카 댄스를 배우기 위해 모인 ‘꿈의 아프리카 댄스’이다.

지난 10월 15일 점심시간이 갓 지난 한적한 오후, 마포구에 위치한 지하 연습실을 찾았다. 지금껏 각양 각색의 춤을 지켜봤지만 ‘아프리카 댄스’라니, 다소 생경한 분야다. 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프리카 춤 댄서인 양문희 씨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수업에 참관해보고 싶다고 부탁했다. 연습은 2시간 넘게



미포문화재단 제공

계속됐는데, 쥘베를 연주하는 4명의 단원을 포함해 15명의 멤버들까지 모두 열정이 가득했다. 고향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수강생 강예지 씨에게 이 수업에 빠진 이유를 물었다. “춤은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죠.” 그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춤이 좋아 무작정 따라 추던 취미 수준에서 벗어나 토할 때까지 극한으로 내몰리는 이 춤이 그냥 좋다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양문희 씨는 졸업 이후 극단과 뮤지컬에서 안무가로 활동했다. 춤을 멈춘 적은 없었지만, 정해진 틀에 맞춰 반복하는 동작에 싫증을 느꼈다. 마치 CD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로봇처럼 느껴졌을까? 현대무용이 그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는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춤을 찾아 여정을 떠났다.

“자원봉사로 갔던 튀니지에서 배운 춤이 ‘진정한 아프리카 춤’인지 고민했어요.” 마치 유럽의 영향을 받은 벨리댄스 느낌이었다. 이듬해 진짜 아프리카 춤을 배우려고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SNS에 아프리카 춤을 검색했죠. 마스터를 찾아가 직접 배우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년에 3개월은 아프리카에서 사는 게 일상이 됐다. “첫해엔 도착하자마자 많이 울었어요. 저 빼고 모두 잘 추는 것 같더라고요.” 춤을 소화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매달렸고 마스터에게 인정받기까지 1년이 걸렸다. “너 진짜 대단하다”는 한마디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이후로 다시 7년이 흘렀다. 한국과 아프리카를 오갔던 지난 세월 동안 서아프리카 7개국의 춤을 섭렵했다. “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현지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저 사람이 댄서 문이야?’ 하고 말이지요.” 현지인보다 더 아프리카 춤을 잘 춘다는 말은 어떤 칭찬보다 듣기 좋다고 고백했다.

“지난 2011년 아프리카 춤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냐고 해요. 뼈다귀를 들고 추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춤이 더 이상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우스꽝스러운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아프리카 대륙은 55개국 2,500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는 우리가 어느 한 곳만 보고 모두를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몸소 겪었던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아프리카에선 몇 사람만 모여도 춤이 빠지지 않는단다. 쥘베와 서너 명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뽐낸다. 그는 그것을 ‘흥’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흥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가 농번기에 춤, 노래, 풍물을 즐기는 풍습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농사를 지을 때 춤으로 기운을 북돋는 문화가 있어요.” 그는 서로가 춤을 통해 서러움을 푸는 면이 비슷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프리카 춤은 흥과 감정에서 나온다며, 팝핀이나 브레이크댄스 같이 기교로 움직이는 것과 근본이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블루스퀘어에서 전통 사물놀이 대가의 콘서트 <사물놀이; GRAND MASTER 이광수>를 관람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하얀 옷을 입은 검은 레게머리의 여성 퍼포머가 상모놀이에 맞춰 요란한 춤을 선보였다. 당시엔 그가 누군지 몰랐다. 게다가 사물놀이와 이 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주인공이 그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았다. 한편으론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라도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똥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싶네요. 우리 춤을 어느 정도 아느냐고.” 초등학교 때 발레를 시작해, 중·고등학교 댄 한국무용을 배운 그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단지 악기와 피부색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전통춤을 추는지 잘 살펴보세요.” 굳이 두 춤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국민성이 아닐까 되묻는다. “우리는 음악이 나오면 무대로 나오길 주저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죠.” 그렇게 열정으로 추는 아프리카 춤이야말로 “죽을힘을 다하는 춤”이란단다.

그가 진행하는 수업은 마포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브랜드인 <꿈의 무대>의 일환이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합창단, 극단, 무용단, 밴드, 오케스트라, 전시, 문학, 그리고 바투카다(브라질 댄스)와 함께 아프리카 댄스를 선보인 <꿈의 카니발> 무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34명의 수강생은 두 달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에 몰두했다. 필자가 연습실을 찾은 날에도 공연을 며칠 앞두고 세부 동작을 다듬고 있었다. 두 개 조로 나뉘어 연습하던 이들은 서로의 몸동작이 하나의 군무처럼 보이는지 전면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몸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는 3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와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단 10분의 퍼포먼스를 위해 땀을 비 오듯 쏟아내는 이들은 자투리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춤을 처음으로 알린 선구자로서, 이후 10년 동안 새로운 길을 파헤친 개척자로서 그는 수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들려줬다. “세상의 어느 것에도 간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마포문화재단 뉴스레터(MACZINE)에 동시 게재됩니다. www.mapoartcenter.or.kr



100편 오페라 제작의 힘



구로문화재단 제공

창작 오페라 <나비의 꿈>



장수동 연출가

장수동은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데뷔해 <춘향전>, <심청>, <안중근>, <백범 김구> 등 100여 편의 오페라를 연출했다. 제1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연출상(2008),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2009), 제24회 기독교문화대상(2011), 서울문화투데이 최우수연출상(2015) 등을 받았다. 현재 서울오페라앙상블 예술감독이자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외국을 좇아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우리의 세계화에 도전해야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나비의 꿈>을 제작한 서울오페라앙상블의 장수동 예술감독의 말이다. 전작을 살펴보면 <백범 김구>부터 이번 작품까지 ‘격동기 인물’에 집중한 것이 많다. 그는 그 이유를 “역사를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한국 오페라를 동시대의 음악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민간 예술단체는 예산 압박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작품을 꾸준히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창단 25주년이 되는 단체를 이끌면서 100여 편의 오페라를 제작했다. 그 원동력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마지막 종합예술이 주는 감수성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란단다. 지금은 구로문화재단의 상주 예술단체로 4년간 활동해오고 있는 데 대해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박스가 있는 곳이 서울에 몇 개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기에 한국 오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신작에 관한 그의 고집에 보상이라도 됐을까. 2017년 초연됐던 <나비의 꿈>은 지난해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시상식에서 ‘소극장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9월 27~28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무대에 오른 이번 작품은 소극장용 공연이지만 오케스트라를 보강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감옥에서 고통받았던 윤이상의 상황을 극 중 극으로 보여주는 과정에 집중했다. 한편 장수동 연출은 대중들에게 오페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하면서도 오페라를 만드는 동료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페라의 변방에서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한 한국 오페라가 세계 속의 오페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글로벌(글로벌+로컬) 오페라로 거듭나야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는 우리(오페라인)에게 맡겨진 소중한 예술 작업이자 사명입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전통의 맥(脈)을 아름다움으로 잇다

이응주 설화수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

과거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내면의 좋은 기운을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기업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는 우리 고유의 미에 대한 가치를 일상의 예술로 만들며 다양한 메세나 사업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가치와 한국의 미'를 문화메세나 활동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설화수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의 이응주 팀장을 만나본다.

설화수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설화수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설화수가 어떤 브랜드인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광고와 홍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까지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화수뿐만 아니라 헤라와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다른 브랜드 업무도 진행했습니다. 설화수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브랜드 코어에 맞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후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또한 전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설화수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업무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설화수와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설화수 연계 시각예술 분야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예술작가 25인의 작품을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는데, 기업이 예술가 창작지원으로 공공과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설화수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과 작업을 진행하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현재에 알리는 데 앞장서왔는데, 설화수의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는 바로 그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가시적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선 젊은 작가와의 협업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문화재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문양, 만나다'를 주제로 꽃과 나비, 새 등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작품을 공모해 시각예술작가 25명의 창작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철학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혹여 낯설지도 모르는 전통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우리 전

통문화를 '일상의 예술'로 이끌어내고자 오프라인 전시의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작업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도 있었는데, 지난 10월 카카오톡 갤러리에 오픈한 지 3일 만에 방문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는 전통을 현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설화수의 고유한 메세나 활동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설화수가 지향하는 미의 철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내면의 좋은 기운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강조한 선조들의 생각과 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브랜드의 뿌리이자 영감이 돼준 한국의 전통문화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대간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는 방법은 결국 문화와 예술이라는 답을 얻어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전통의 가치와 장인정신, 궁극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올해로 13회를 맞은 '설화문화전'입니다. 설화수는 그동안 전통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장인정신을 지켜내고자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03년에는 40여 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설화문화클럽'을 창설하여 한국 전통문화모임과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문화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설화문화의 밤'이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비영리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등 후원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뜻을 모은 문화모임은 설화문화전



의 근간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설화문화전은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게 변모해왔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전통을 있는 그대로,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시가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대중화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5년 전부터 전시의 방향을 바꿔 장인들의 작품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도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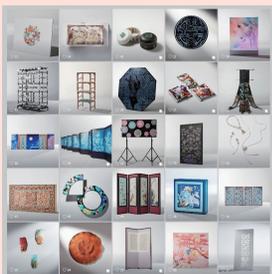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지난해 설화문화전인 <포춘랜드-금박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전까지 외부 아트디렉터들이 전시를 기획했는데 작년에는 저희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에서 오롯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전통 소재인 금박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의외성을 띤 서양의 놀이기구를 들여와 그 위에 동양의 금박을 구현했습니다. 금박을 주제로 한 패션쇼 오프닝 등은 전혀 새로운 시도여서 작년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분사로 이전해 처음 진행한 전시였던 데다가, 저희 팀에서 기획을 담당했기에 전시 오프닝 때 많이 떨었지요. (웃음)

말씀하신 의외성이라는 지점이 내부에서도 센세이셔널하다는 평을 들었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문양의 집>은 ‘지금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서 전통문양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박물관과 미술관 밖에서 전통문양의 실용적, 심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합니다. 공예와 같은 한정된 예술 장르를 벗어나 일상적 삶에서 전통문양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래서 가장 일상적이고 근원적인 ‘집’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설화문화전 기간 중 아트상품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한국문화재단의 선정을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에 전액 기부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명맥이 끊겨가는 무형문화재 종목(갯일 강순자 보유자, 배첩장 강성찬 이수자, 자수장 김태자 전수교육조교)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화문화전이 기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화수 아트 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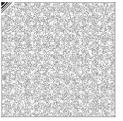


키아오갤러리
<https://gallery.v.daum.net/p/premium/sulwhasoo>
 인스타그램(설화수 컬처계정)
www.instagram.com/sulwhasoo.culture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문양의 집>



기간 10월 18일(금)~12월 29일(일)(월요일 휴관)
 장소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가장 일상적인 '집'이라는 공간, 그 문을 여는 순간 빠져드는 전통문양의 감각적 미시 세계
 참여 작가 김이홍(건축), 박성진(공간기획), 강주리(드로잉), 김진진(패브릭), 백중환(인테리어), 이다은(패션), 조은애(패션), 최경모(영상)
 관람료 무료



1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문양의 집> 리빙룸.
2 전통기능 칠보공예 전승자 노용숙 장인과 함께한 '실란 명작 컬렉션'.



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올해 전시에서는 화조영모도 같은 조선시대 병풍 속의 문양을 현대 작가들의 시각으로 재구현했습니다. 건축가, 일러스트 작가, 영상 작가, 패션 디자이너 등이 참여했구요. 문양을 구조물과 그래픽, 영상, 패션으로 확장하여 보여주는 전시예요. 전시장을 방문하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문양을 보면서, 현대와 전통을 넘나드는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소개한 사회공헌사업 외에도 화장품 브랜드로서 설화수 제품과 예술을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브랜드의 뿌리이자 영감이 돼준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 제품으로 발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실란 메이크업 컬렉션'인데요,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실란은 '옛 여인의 곁에 자리했던 한국의 전통미의 재발견'이라는 테마로 매년 잊혀가는 전통기법, 옛 소재들을 선정하여 설화수만의 미감으로 구현합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한국적 미의 본질을 재현하고, 우리 고유의 화장 문화를 계승하고자 한 것입니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 전통기능 칠보공예 전승자 노용숙 장인과 함께 '실란 명작 컬렉션'을 선보이며 그동안 실란의 스토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실란 메이크업 제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보존 계승이 필요한 세계의 문화유산에 기부되는 데요, 이는 2017년부터 시작된 'Beauty from Your Culture'라는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찾은 실용성과 미학이 설화수 제품을 통해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은 것처럼, 설화수는 이 캠페인을 통해 한국을 넘어 중국, 싱가포르의 전통 문화 보전과 계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을 잃지 않고, 그동안의 활동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어가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설화문화전을 비롯해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에 대한 후원, 글로벌 CSR 활동이나 실란 메이크업 컬렉션 등 앞으로도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전통문화와 그 안에 담긴 숭고한 장인정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리 황현정_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최성열 사진 제공 설화수

<p>아트서울 기부♥공투게더</p>	<p><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적지만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기부 브랜드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해 예술 기부로 함께하는 기부자의 인터뷰로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p>
--------------------------------	--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 '작가들의 수다'

일시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8시~9시 30분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사회 강영숙
작가 찬드라하스 초우두리(Chandrabhas Choudhury),
배수아, 전성태, 정영선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우리를 비추는 천 개의 거울'을 주제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DDP 전역에서 열렸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와 해외의 작가들이 문학 교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지난 2006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격년으로 개최해온 축제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개최될 축제에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작가들의 수다'는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모여 '젠더', '디아스포라', '혐오와 분노'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나, '미학', '이야기' 같은 개인의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총 5회의 세션 중에서 찬드라하스 초우두리, 배수아, 전성태, 정영선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세션을 소개한다.





‘작가들의 수다’의 두 번째 세션이었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의 진행을 맡은 강영숙 소설가는 먼저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취지와 함께 참여 작가와 약력을 소개했다. 켈드라하스 초우두리는 인도 뉴델리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소설가 겸 수필가로 첫 장편소설 〈난쟁이 아르지〉(Arzee the Dwarf)가 커먼웰스 퍼스트 도서상(Commonwealth First Book Prize)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배수아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화학을 전공하고 1993년 단편 〈천구백팔십팔년의 어두운 방〉 이후 수 권의 장편과 단편소설, 에세이를 출간했으며 독일어 번역가로도 활동한다. 전성태 작가는 1994년 계간 〈실천문학〉 신인상에 단편 〈닭몰이〉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 〈매향埋香〉, 〈국경을 넘는 일〉, 〈늑대〉, 〈두번의 자화상〉, 장편소설 〈여자 이발사〉 등을 출간했다. 정영선 작가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1997년 〈문예중앙〉에 발표한 〈평행의 아름다움〉으로 등단했으며 다양한 내력의 탈북이주민들이 등장하는 장편소설 〈생각하는 사람들〉을 썼다.

토론에 앞서 4명의 작가들은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선정한 작품의 한 부분을 낭독했다. 켈드라하스 작가는 올해 발간된 소설 〈차이나 드래곤: 중식당 경영기〉의 일부를 읽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뭍바이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공부했다. 식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음식을 누군가의 앞에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서 작품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수아 작가는 단편 〈뱀과 물〉의 한 장면을 낭독했다. 이 장면을 고른 이유로 “작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독일어로 낭독회를 했는데 한국어로 소설의 한 부분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어를 아는 청중이 한 명도 없는 낭독회에서 한국어로 낭독했다. 매우 경이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낭독을 ‘좋았다’가 아니라 ‘이해했다’고 말했다.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한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전성태 작가는 “축제 책자에 실린 에세이의 제목 ‘스파이들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를 말한다. 분단된 후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죽은 북한군들의 묘지”라고 설명하고 〈성묘〉는 어느 날 북한군의 묘지에 국화꽃이 놓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며 쓴 소설이라면서 마지막 부분을 낭독했다. 정영선 작가는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책도 부산의 출판사에서 펴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역에서 문학을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데 초대해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 부분을 읽었다.

강영숙 사회자는 “낭독을 들을 때마다 한국어가 새롭게 들린다. 언어야말로 쓰는 것과 다르게 청중들이 들어주는 순간 의미가 되고 빛이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낭독 시간을 마무리하고 수다를 이어 갔다.

강영숙 첫 번째 질문은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과 관계있는 에세이가 책자에 실린 켈드라하스 작가의 〈봄베이와 델리: 내 삶의 두 도시〉와 배수아 작가의 〈어디로도 가지 않고, 멀리,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인데요.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에 대해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작가들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은 경계 위에서 이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느낌으로 살고 글을 씁니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지속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가님들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켈드라하스 작가가 누리는 즐거움 중 하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사이더 역할을 해야 하고, 자신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언어에 있어서는 들리는 부분에 대한 번역도 필요하지만 안 들리는 부분도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명하게 보이는 것만 쓰는 것은 검증밖에 안 됩니다. 도시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글을 쓰다가, 어떤 터널을 지나가면서 완전히 아웃사이드 입장에서 전혀 다른 관점의 글을 쓰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곳인데 더 이상 그 도시를 좋아하지 않게 된 감정의 변화를 글을 통해 드러냅니다. 문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다루고 작가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글을 쓰도록 요구 받습니다.

과거에 인도는 내향적인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면 인도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때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저보다 먼저 먼 세계로 떠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디아스포라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언제나 자신을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에 이산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아 저는 제가 왜 디아스포라 세션에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제가 쓰는 글은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하게 경계를 넘어서는 글 쓰기, 이질적이라는 말로 저의 글을 카테고리화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것은 다른 한국 작가를 연상시키는데요. 대학시절에 우연히 흥미로운 여성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글을 썼기 때문에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평론가들이 그의 글을 이민문학이라는 장르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정주부로서의 체험이 글의 영감으로 작용했고 이민자로서 뉴욕에서의 삶을 그렸다고 그냥 이민문학이 된 것에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주변문학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에요. 디아스포라 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의 제목 붙이기는 제 성향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을 무대로 하면 디아스포라인가요. 지금은 지리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정체성이 혼돈스러워 저를 디아스포라에 맞춰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의 범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전성태 제가 배 작가를 디아스포라에 넣은 이유를 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디아스포라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는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 중 사실 디아스포라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배 작가의 작품은 다른 관점과 시선을 풍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웃사이터의 관점을 잘 전달해줄 거라 상상했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될 운명이나 예감도 이번 에세이에 나와 있어서 잘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영숙 저는 배수아 작가의 존재 자체가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영선 저야말로 말은 잘 통하지만 문화가 낯설어서 어딘가에서

뚝 떨어져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모인 자리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만난 것도 처음입니다. 제 소설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고로 저는 탈북민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에 북한에서 온 분들의 적응을 돕는 기관인 '하나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고향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왔는지, 그 이유는 각각 다른데 그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계 밖으로 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누군가를 보면 약간의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변화뿐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작가가 할 일 아닐까요.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고 누구나 경계를 넘어가거나 넘어선 자들을 봐야 합니다.

강영숙 두 번째 질문은 벽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학교를 다닌 386세대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9·11'이 터지고, 다른 형태의 전쟁이 나고, 장밋빛이 아닌 세상을 목도하면서 벽이라는 이미지가 공고화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정영선 작가의 벽에 관한 에세이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벽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남북관계는 이전과 달라졌고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도 세계대전의 상흔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개인에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 안전하냐'는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에세이에는 세대적인 감각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 어떤 형태로 변할지 이야기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성태 저도 분단 무렵에 태어난 세대가 아닙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군 복무를 했지만 분단을 실감하면서 산 세대도 아닙니다. 20대에 국가와 민족을 고민하던 시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가 감각하는 정체성은 대체 어떤 것일까. 한반도라는 중력에서 자유로울까.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뭉가에 묶여 있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은 느낌이 공존했



강영숙, 찬드라하스 초우두리, 배수아(왼쪽부터).

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묶여 있는 것도 벗어나고 싶은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 세대도 남북문제에 대한 희망고문이 큰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이 된다면 다양한 상상력과 주장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정영선 벽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벽을 높게 쌓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벽이면 분단의 상황이 모두에게 덜 부담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3만 명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굶어 죽기도 했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벽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옆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는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벽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드라하스 한국의 상황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도는 과거에 더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역사 중에 제대로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했습

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그들과의 대립적인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1980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성장할 때는 많은 매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은 악마로 생각했구요. 그런데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파키스탄 학생과 교류해 보니 제 편견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해왔는데, 제3의 지역에서 만나보니 저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인도 내에 살면서도 서로 굉장히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도인 사이에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인도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문화적으로 달라지지만 결국 하나의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우리를 나누는 것보다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보면 현실적인 논의만 이뤄지고 벽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만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학을 통해, 문화를 통해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강영숙 다른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찬드라하스 제가 이 자리의 유일한 외국인인데요. 새로운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단어를 배우는 것이더라고요. 한국어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성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호감을 느끼는 단어 1위는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어제 작가들의 수다 첫 번째 세션에서 침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 저항하지 않는 침묵, 저항하는 침묵이 있는데요. 소란 속에서도, 소리가 소거된 상태에서도 마음으로 맞이하는, 내면의 응시 같은 침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배수아 저는 국문학 전공이 아니라 단어의 기원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매우 사랑하는 단어는 땅거미예요. 땅거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단어 자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거미라는 말을 들으면 검은 거미가 긴 다리로 땅 위를 기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 매직아워보다 조금 더 어둠이 많이 내려간 시간을 움직이는 거미의 다리로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런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양, 어두움, 어스름으로 번역하면 시각적인 힘이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첸드라 하스 단어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구름>(Clouds)이라는 소설을 7년 동안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글을 썼는데요. 소설의 10~15%는 마지막 단어가 '집'(home)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대한 욕망, 안정을 주는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구름', '집'입니다.

강영숙 구름이 있을 때 상상력이 발동한다고 에세이에 쓰셨더라고요. 3개의 도시를 축으로 문학 여정을 설명한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태생지를 한 번 떠났다 돌아오는 것이 이전 세대의 삶이라면 작가님의 에세이를 보면서 삼각형의 구도가 사각형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가 여정에 다른 도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디인가요? 다른 작가님도 어떤 도시에 있을 때 글이 잘 써지고 많은 영감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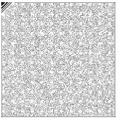
첸드라 하스 여러분의 경험과 제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18살부터 25살까지는 대도시에 매혹됐습니다. 다들 대도시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대도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



전성태, 정영선(왼쪽부터).

을 깨닫고 대안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고유성을 가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대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곳은 상상 속의 도시입니다. 여행을 가본 여러 도시들의 속성을 집합해 상상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사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델리, 태어난 뭍바이, 어머니의 고향인 부바네스 와르를 삼각형으로 여행하지만 네 번째 도시는 제 상상 속의 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수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에세이가 도시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여성 시인인데 빈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빈에 대해 믿을 수 있고 빈에서만 마음의 안정과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이 있을 곳이며 매우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는 도시이지만, 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겹고 사람들도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 인간과 지역과의 관련성, 작가로서의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인간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떠나 외국에서 지내거나 태어난 지역에만 머물면 정신세계가 어떨까 것이라는 정형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고 자란 서울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서울



에 있으면 단어의 뜻을 생각하거나 알아듣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서울의 시스템과 서울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이 편하고 집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이 들고 긴장이 덜 되고 분명 서울에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지만 서울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치환해도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 중 1 디아스포라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작가님들이 쓰고 싶은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 성 태 디아스포라는 현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정주하는 곳이 없고, 떠나와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좋겠고, 제 과거의 시간으로 이주해보고 싶습니다.

청 중 2 배수아 작가님은 본인의 문학이 카테고리화되는 것을 얘기했고, 정영선 작가님은 지방에서의 작가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개인의 문학이 인도문학, 역사문학, 지방문학 등으로 규정된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이 본인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전 성 태 저는 농촌작가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 (웃음) 책이 나오면 독자들은 다양하게 읽어냅니다. 밖에서의 규정이 작가에게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책이 읽히듯 작가도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첸드라 하스 작가를 분류하는 기준은 많지만 이를 경계하거나 지나친 분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분류했을 때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탈피할 방법은 많습니다.

청 중 3 장소 기반의 디아스포라가 의미를 상실했다 해도 문학은 결국 언어이고 배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장소 기반의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 영 선 단어로만 듣던 디아스포라를 몇 년 전에 구체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재일조선인을 만났는데요, 나이

는 저보다 어렸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학교를 나왔고, 살면서 한국 이름 외에 일본 이름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해요.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감동이 북받쳤습니다. 그분들을 소설로 불러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도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첸드라 하스 동의합니다.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데요. 디아스포라 자체가 중요한 경험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롭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청 중 4 배수아 작가님은 디아스포라 작가로 불리기 싫다고 했는데 어떤 작가로 보이고 싶은지 이야기해주세요.

배 수 아 불리기 싫다기보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리적 이동이나 차이가 희박해진 상태에서 글을 쓰는 작가들은 당연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글을 쓴다고 해서 더 이상 이민문학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디아스포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디아스포라가 민족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실 벽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민족의 벽이 사라지면 국경의 벽이 남고 계급의 벽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절대 악이라고, 저의 문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작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책으로 나타나야지요. 저는 낭독하는 작가, 욕심을 하나 부리자면 소리로 텍스트를 전달하는 작가로 보였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강 영 숙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결국 한 개인에게, 사회에게, 민족에게 사유를 남깁니다. 정체성에 대한 사유, 민족에 대한 사유 체계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마른 나뭇잎, 예술이 되다

나뭇잎 조각가 권오석

권오석은 부서지기 쉬운 마른 나뭇잎에 사물의 형상을 조각하는 나뭇잎 조각가다.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나뭇잎 조각(Leaf Art)'이라는 장르를 접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나뭇잎 조각이 누군가에게 행복과 힐링으로 다가 가길 바라며, 그는 오늘도 힘들지만 보람 있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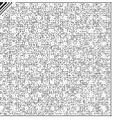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창의력이 조금 좋은 편이라 미술 과목에서는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회에서 수상도 했다. 군 복무 중에는 국방일보에서 '불조심'과 '구타 금지' 표어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보고 하룻저녁에 80편을 만들었으며, 그런 창의력은 회사에서도 발휘됐다. 1년에 36건의 관리개선을 제안했고, 각종 포스터나 기획, 네이밍 공모에서 다수 입상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TV에 나와 재주와 기량을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재밌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나도 나만의 취미와 특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외국의 '나뭇잎 조각'을 접하면서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독학을 시작했다.

나뭇잎 조각은 자칫 부서지기 쉬운 마른 나뭇잎에 손과 칼을 이용해 사물의 형상을 음·양각으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현대에 새롭게 대두된 예술 장르이다. 나뭇잎 습득부터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는데, 크기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 조각에만 짧게는 3시간부터 길게는 며칠이 걸린다.

마른 나뭇잎은 부서지기 쉬워 고도의 집중력, 인내력, 창의력을 필



2



3

- 1 <독도(獨島) 한국땅>(Dokdo of Korea), 2014. ©권오석
- 2 <남매(男妹)>(Brother and Sister), 2013. ©권오석
- 3 <청와대(靑瓦臺)>(Blue House), 2012. ©권오석

요로 한다. 조각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스케치는 도화지에 그리고 지우는 것을 반복할 수 있지만, 나뭇잎은 칼에 잘리면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현재까지 약 2,000점을 완성하는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며 ‘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술의 한 장르를 개척하고 대중화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성취감, 그리고 사명감을 느낀다.

작가의 특권을 공유하기 위해

화가는 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작가는 신의 언어를 글로 표현한다고 한다. 놀랍고 신기하고 독특한 나뭇잎 조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신의 특권을 홀로 누리는 것이므로, 작가로서 이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올해 <열정에서 행복으로>라는 시집에 이어 나뭇잎 조각 작품 모음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한 점의 나뭇잎 작품

이 탄생하기까지 기나긴 인고와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신기하고 독특하며 믿을 수 없이 놀랍다고 생각한다면, 지나간 인고의 시간을 보람으로 느낄 것이다. 나 또한 지난 열정의 결과물을 감상하며 힐링과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음악(音樂)이라는 글자는 풀이하면 약이 되는 소리라는 뜻이며 미술(美術)도 감동을 전하여 치유(healing)하는 것이 기본이다. 나뭇잎 조각이 힐링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온 국민이 행복해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나뭇잎 조각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작가로 영원히 기억되고 회자되기를 희망한다.

글·사진 제공 권오석, 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며, 고려대 사회안전행정학 석사를 거쳐 건국대에서 재난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부 때 안전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우연히 나뭇잎에 조각하는 외국 작가를 알게 되었고, 독학으로 공부해 나뭇잎 조각을 시작했다.





초연히 겨울로 떠나야 하는 시간
세상이 저무는 11월입니다.
바람이 불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합니다만
쫓고 힘든 그때 청계천 어느 시장 앞에서
그는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11월은 이제
가장 뜨거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청계천 전태일교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한국무용계의 고질적 병폐, 해결 가능할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한 갑론을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보유자 인정을 두고 지난 4년간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9월 6일 보유자 인정을 예고하면서 일부 한국무용계 인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그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법의 전통성 여부 논란, 조사자의 전문성 시비 등이 꾸준히 불거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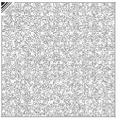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

문화재청의 보유자 심사를 둘러싼 잡음은 2015년부터 거칠어졌다. 그해 말 조사 위원 명단 등의 노출 시비가 제기됐다. 2016년 초에는 태평무 부문만 양성옥 씨가 보유자로 인정됐다가, 무용계 일각에서 반발이 일자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들을 제친 파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평생 춤에 매진해온 원로를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와 비교적 젊은 양 씨의 전승 능력이 아깝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이번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승무에 채상묵 씨(이매방류), 태평무에 양성옥, 이명자, 이현자 씨(강선영류)와 박재희 씨(한영숙류), 살풀이춤에 김정수, 정명숙 씨(이매방류)와 김운선, 양길순 씨(김숙자류) 등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너무 다수의 보유자가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용 종목의 활성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보유자 인정 예고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승무 보유자 이매방(1927~2015)의 전수교육조교인 김묘선 씨가 “본인이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에서는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나뉜다. 인간문화재, 즉 보유자는 무형문화재의 최고 서열이다. 다음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순이다. 김 씨는 자신이 보유자 다음인 전수교육조교임에도 자신을 제치고 이수자인 채 씨가 보유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보유자가 타계하면 관례적으로 전수교육조교가 보유자의 뒤를 이어왔다. 김 씨는 “김묘선승무전수소 11개를 두고 승무의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무용계에서 보유자가 차지하는 위상은 어떨까. 보유자로 지정되면 1년에 한 차례 기능을 공개해야 한다. 전수교육의 의무도 생긴다. 대신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 지원금을 받는다. 물론 생계 등을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런데 보유자는 전수교육조교보다 두 배가량 많은 131만 7,000원을 매월 받는다. 이수교육 과정에서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 큰 혜택은 명예다. 인간문화재는 해당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전승 자체가 도제식으로 진행된다 보니 스승에게 모든 권한이 몰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문화재에 대한 부러움과 질시, 보유자·보유단체를 통한 인적 전승 시스템 내 구성원 간 갈등 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1 강선영 태평무. (강선영 측 제공)



2 이매방 승무. (이매방 측 제공)

전승자 층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해야

현재 인간문화재 선정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한 논쟁 중 가장 큰 쟁점은 보유자를 정하는 문화재청의 행정 절차다. 현 제도가 투명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밀실·탁상 행정이라는 얘기가. 영상기록으로 기량을 점검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분명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연보다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든 만큼,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도 한국무용계 내부를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다. 신규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승 활성화가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동시에 원로를 대접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자 층원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업계 사람들 모두가 동의한다.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에 젊은 세대가 지원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폐쇄적이며 비현실적인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무용계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둘러싼 몇 년간의 일련의 갈등은 취약한 내부에 고질적인 병폐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갑론을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유자 인정을 확정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재청은 10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보유자 인정이 확정된다면 태평무는 31년, 살풀이춤은 29년, 승무는 19년 만에 새 보유자를 갖게 된다. 현재 승무는 이매주 선생이 유일한 보유자다. 태평무와 살풀이춤은 보유자가 없다. 2014년 승무 보유자인 정재만 선생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이듬해 승무와 살풀이춤 보유자였던 이매방 선생도 별세했다. 2016년에는 태평무의 유일한 보유자였던 강선영 선생이 작고했다.

글 이재훈_뉴스스 기자

〈다다익선〉의 브라운관 보존은 과연 ‘원형 유지’일까?

백남준 〈다다익선〉 복원 계획을 둘러싼 논란

9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이하 MMCA)이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1988)의 보존 방향을 발표했다. 〈다다익선〉은 1986년 MMCA 과천이 개관하면서 설치된 모니터 1,003대, 높이 18.5m의 작품이다. 지난해 2월 브라운관(CRT) 모니터가 노후해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보존, 철거, 혹은 오마주 작품 제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년여의 시간 끝에 MMCA는 “CRT가 탑재된 원형 유지를 기본 방향으로 보존하며, 2022년 전시 재개를 목표로 3개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CRT 보존을 MMCA의 말처럼 ‘원형 유지’라 볼 수 있을까?

‘원형 유지’ 결론이 나온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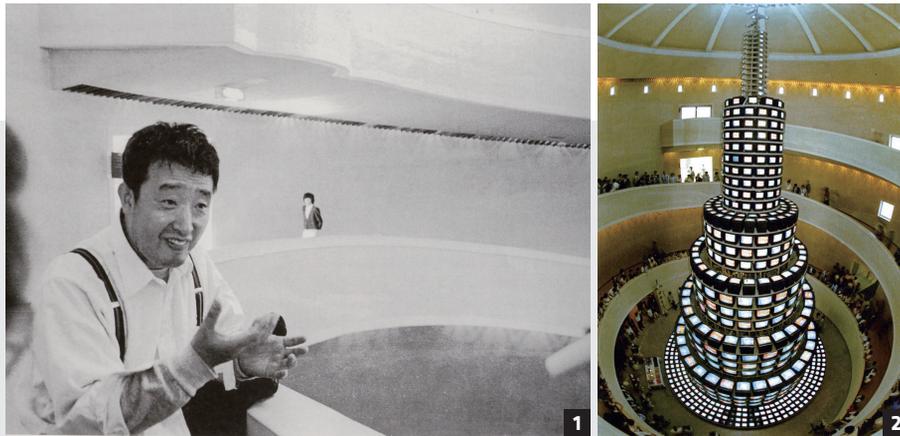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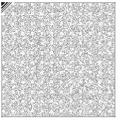
MMCA는 국내외 전문가 4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에는 독일 카를스루에에 있는 예술과 매체기술 센터(ZKM),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 휘트니미술관 관계자, 이숙경 테이트 시니어 큐레이터, 김홍희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이지호 전 이응노미술관장, 이정성 아트마스타 대표 등이 포함됐다. 결과는 ‘LED 등 신기술로 교체’(23명), ‘CRT 유지’(12명), ‘기타’(5명) 순이었다. ‘소멸하도록 두자’거나 ‘완전히 해체, 보관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신기술로 교체하자는 것이 우세했지만, MMCA는 CRT 유지를 택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작고한 작가의 작품을 복원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원형 유지’이며 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술관의 임무다. 작품은 어떠한 방식이든 시대성을 반영한다. 〈다다익선〉의 CRT 모니터는 20세기 대표 매체로 미래에 20세기를 기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CRT를 최대한 복원해 작품의 시대적 의미와 원본성 유지에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MMCA는 동일 기종 중고품을 구하거나 수리하고, CRT 재생기술 연구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경우 LCD(LED), OLED, Micro LED 등 최신 기술을 부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전시 재개를 목표로 2020년부터 3개년 중장기 복원 프로젝트가 가동될 예정이다. 추정 예산은 30억 원, 모니터의 예상 수명은 10~15년이다.

〈다다익선〉의 원형은 브라운관인가, 영상인가

MMCA는 브라운관 보존을 ‘원형 유지’라고 밝혔지만, 예술 작품의 속성을 따져보면 고개가 가우뚱해진다. 〈다다익선〉이 단순한 조각 작품이라면 브라운관이 ‘원형’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은 영상과 작동 소프트웨어가 주인공인 ‘미디어 아트’다. 통상 예술작품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의사가 아닌 ‘작가의 의도’다. 작고 작가의 경우 유족이나 저작권자의 의견을 듣는다. 〈한겨레〉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MMCA 측은 저작권자인 켄 백 하쿠타(백남준의 장조카)에게 가장 먼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자문 요청을 받은 미국 큐레이터들이 켄 백에게 ‘내가 답해도 되



1 1987년 <다다익선> 설치를 구상하는 백남준의 모습.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2 1988년 일반 공개 당시 <다다익선>의 모습. 이때도 백남준은 작품의 수명이 시한부임을 알고 있었고, 시한이 다하면 새 기술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두 달이 지나서야 공문을 받은 켄 백은 잘못된 순서에 불쾌함을 느껴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MMCA는 저작권자의 답 없이 자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저작권자와 접촉이 어려웠다면 그다음엔 최소한 작가의 의도를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

백남준은 이미 1988년 <다다익선>을 설치할 때부터 이 작품의 수명이 10년을 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교체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서울랩소디>를 작업할 때는 LCD 모니터를 사용했다. 또 2003년에는 <다다익선> 설치 과정을 함께한 이정성 아트마스타 대표에게 "after service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친필을 팩스로 남겼다. 이 대표는 평소 "백남준 작품의 핵심은 곡면 브라운관이 아닌 영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술관이 임의로 'CRT도 시대성을 반영한다'고 결정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브라운관 유지는 교육지책에 불과하다. 몇 년 뒤에 시한이 다할 바보 같은 짓을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작품이 고장 나고 수리하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미디어아트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베른하르트 제렉스 전 ZKM 수석큐레이터도 "1988년의 TV가 보존되지 않았는데, 맞지 않는 기술에 고군분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단기적 해결책이자 헛된 절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미술관답지 않은 보수성 아쉬워

MMCA는 왜 작가의 의도와 다수 전문가의 조언을 뒤로한 채 '브라운관 유지'를 발표해야 했을까? 그 선택에서 느껴지는 건 변화를 피하려는 극도의 보수성이다.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절반 이상을 LCD로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후폭풍을 감당하기보다,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고자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전문가 의견 중 보수적인 의견을 취사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가장 유연한 모습으로 사회에 영감을 주는 것이 현대미술관의 역할임을 고려하면 무척이나 아쉬운 모습이다. 예술을 향유할 먼 미래의 국민까지 고려하는 거시적인 시각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다익선>과 백남준의 예술성을 감당하기엔 아직 우리 사회가 준비가 안 된 걸지도 모르겠다.

글 김민·동아일보 기자

당신은, 나와 같은 인간인 당신은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한국의 〈휴먼 푸가〉와
폴란드의 〈The boy is coming〉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두 편의 공연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폴란드에서 각각 제작됐다. 2019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으로 11월 6일 개막하는 연극 〈휴먼 푸가〉와 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이 제작한 〈The boy is coming〉이 그것. 남산예술센터는 이 우연의 일치를 기념하기 위해 내년 5월과 10월을 목표로 두 작품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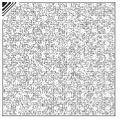
지난 6월,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휴먼 푸가〉를 준비하던 중 광주에 다녀왔다. 녹음이 푸르던 자유공원에서 본 으깨어진 시신들의 모습이 며칠이고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다. 이제는 너무 잔혹해서 어두운 방안에서만 보게 해둔 사진들, 시신이 조각되었다고 전해지는 국군통합병원의 보일러실, 실려와 격리된 채로 치료 아닌 치료를 받으며 더욱 내면으로 침잠했다고 하는 병동들. 광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다. 많이 듣고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모두 담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휴먼 푸가〉는 준비할수록 두려운 작품이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무대 위로 올릴 수 있을까. 아직 ‘그자’가 살아 있고, 여전히 그 상처가 진행 중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해

〈휴먼 푸가〉는 작년 겨울 남산예술센터와 첫 만남을 가졌다. ‘공연창작집단 뛰다’(이하 뛰다)가 2019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공모에 응한 덕이었다. 읽을수록 고통이 몸에 새겨지는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어떻게 남산의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광주를, 뛰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배우의 몸과 소리를 탐구하고, 광대와 오브제에 대해 연구하며,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연극 형식을 실험해온 극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뛰다의 배우선 연출은 〈휴먼 푸가〉를 설명하며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지 않는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11월 6일 개막하는 〈휴먼 푸가〉를 올 초부터 준비했다. 보통 작품 연습 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흔치 않은 일이다.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광범위한 리서치, 토론, 연습이 계속됐다. 연기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행위를, 말과 몸을 일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훈련을 했다. 광주를 통해 배우 각자가 경험한 것을 관객에게 감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승희

〈휴먼 푸가〉 공연 연습 모습.

한강의 〈소년이 온다〉도 광주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안고 출발한다. 그래서 소설에는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돌보고, 마지막 날까지 도청에 남기로 결정했던 ‘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너’라는 2인칭으로만 호명된다. 소년은 호명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 소설은 커다란 사회적 상처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상기시키며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

〈휴먼 푸가〉 역시 소설을 서사화하여 극화시키지 않고 말과 몸을 분리하는 실험을 했다. 재현 ‘불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질문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딜레마 안에서 감각의 가능성을 열어 ‘인간은 약한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휴먼 푸가〉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신문을 통해 〈소년이 온다〉의 다른 공연 소식을 알게 됐다. 한강 작가가 〈휴먼 푸가〉에만 저작권을 허했다고 알고 있었기에 놀랐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폴란드 연출이 폴란드 배우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기에 놀랐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폴란드의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Marcin Wierchowski) 연출이 〈소년이 온다〉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아 5·18기념재단에 연락했고, 그곳에서 한강 작가와 연결해주었다고 한다. 한강 작가는 고심 끝에 공연권을 허가했는데, 폴란드 레지던시 체류 경험과 더불어 폴란드 역시 거대한 폭력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등이 그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광주의 비극에 폴란드의 두려움을 이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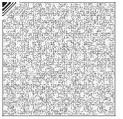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한국과 폴란드에서 비슷한 시기에 준비되는 것을 보며 극장은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두 공연을 두 나라에서 함께 선보이면 어떨까, 한강의 작품이 어떻게 무대화되는지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 폴란드는 광주를 어떻게 말할까.

동시대, 실현, 초연을 브랜드로 삼는 창작초연 중심 제작극장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에 외국 작품이 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손에 꼽을 만큼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내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는 사실도 폴란드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폴란드 문화부 산하 예술지원기관)과의 소통도 빠른 결정에 큰 힘이 됐다. 그렇게 말로서가 아니라 직접 공연을 보고 논의하기 위해 극장과 뛰다의 배요섭 연출이 10월 초 폴란드에 다녀왔다.

<소년이 온다>의 폴란드 공연 <The boy is coming>(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 제작,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 연출)은 장장 5시간 동안 진행된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장별로 구성하고, 2부에서는 폴란드의 현실을 반영한 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공연은 1781년 설립된,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스타리 국립극장의 8군데 공간 사이를 이동하며 진행됐다.

<The boy is coming>은 우리가 지난 1년 여간 고민해왔던 지점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무대에는 동호가 등장했고, 에필로그에 엄마의 입을 빌려 잠깐 존재했던 동호의 두 형도 무대에 섰다. 정미 누나가 상무관에 있었고, 정대의 몸이 높게 쌓아올려졌다. 그래서 이 공연을 한국의 관객들과 함께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잠깐 들었다.

마르친 연출은 이 공연을 '두려움(fear)'이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 그리는 두 가족의 이야기는 2028년, 아직 도래하지 않은 폴란드의 미래인데, 극 중에서는 2021년 12월 폴란드에 어떤 '큰 사건'(광주와 같은)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 폴란드의 현실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두려움을 극으로 들여온 것이다. 나날이 우경화되고 민족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동



- 1 1781년 설립된,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스타리 국립극장.
- 2 〈The boy is coming〉 포스터를 배경으로 한 기념 사진.
- 3 폴란드의 〈The boy is coming〉 공연 모습. (스타리 국립극장 제공)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했다. 그는 “5년 전의 폴란드에서는 광주와 같은 폭력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국가 폭력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했다.

〈The boy is coming〉은 〈소년이 온다〉를 세밀한 서사적 구조로 전달하며 폴란드의 혼란한 상황 안에서의 두려움을 ‘그 대로’ 전해 경고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를 드러낸다. 이국의 광주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두려움을 폴란드의 것으로 이식한다.

경계를 넘어 던지는 질문

〈휴먼 푸가〉라는 제목은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어 변주되는 음악의 구조 ‘푸가’(fuga)에서 빌려왔다. 1980년 광주에서의 큰 폭발이 개인에게 피폭되었고,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생겨난 고통이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계속 변주되면서 이어진다. ‘피폭’으로 표현되는 거대한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은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고통은 개인의 고통으로 내면화되고, 개인의 고통은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평화로운 일상에 떨어진 사회적 폭력을 바로 응시하고 들여다보는 일을 나눠 갖는다.

남산예술센터는 2020년 5월과 10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두 작품의 공연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광주-폴란드 크라쿠프를 잇는 공연을 협의하고 있는 두 작품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며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앞서 폴란드의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 연출이 11월에 서울을 방문한다. 11월 9일 〈휴먼 푸가〉 오후 3시 공연이 끝난 후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에서 〈휴먼 푸가〉의 배요섭 연출과 만나 광주를 어떻게 무대에서 발화하는지 소개한다. 〈휴먼 푸가〉의 관람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글 송서연_남산예술센터 기획제작 PD 사진 제공 남산예술센터, 스타리 국립극장

생활 속에서 빛은 화음이 무대조명을 받을 때

제6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제6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가 진행됐다. 오케스트라는 물론 국악기, 하모니카, 색소폰, 오카리나, 클래식기타, 팬플루트 등 단일악기로 구성된 앙상블까지 모두 41개의 악단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참가 인원은 약 2,500명. 14개의 무대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각 무대마다 3개의 악단이 하나의 공연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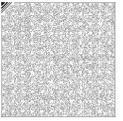
이번 축제를 위해 5월과 6월, 시민을 대상으로 3회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생활예술인들과 축제의 방향을 설계하고 공유하는 장이었다. 6월과 7월에는 참가 단체를 모집했다. 영상과 인터뷰 심의를 통해 축제를 꾸밀 30개 아마추어 단체들을 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로 9개의 학생 오케스트라와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장을 만들었고, 참가자들의 연령층에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생활예술 꿈나무들의 특별공연

9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폐막공연은 특별한 순간이었다. 74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과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기 때문이다. 폐막공연을 위해 서울시향 단원들은 시민 연주자들에게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주인공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 서울시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신은혜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의 지휘로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 '왈츠', 베토벤 교향곡 5번과 같은 명곡을 선보인 후 5명의 트럼펫 협연자와 함께 〈나팔수의 휴일〉을 연주했다. 그들 중에 한국의 음악계를 이끌 리더가, 혹은 몇 십 년 뒤 생활예술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할 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이 갔다. 특히 〈나팔수의 휴일〉에서 호흡을 맞춘 미래의 다섯 트럼페



2



3

1, 2 제6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폐막공연 모습과 지휘자 월슨 응.
3 지난 9월 7일, 폐막공연을 위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시민 대상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연주를 들려 주었다.

특별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서 상영된 영상은 이번 축제 참가자들의 마음과 느낌을 담은 '생활예술 보고서'와도 같았다. '생활예술이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그들은 '즐거움', '오아시스', '자신감', '생활의 활력소', '우정', '공감', '삶에 불어오는 바람' 등이라고 답했다.

이 순간만은 모두가 음악가!

전문 연주자와 시민 연주자가 함께한 이번 무대의 공연 포스터와 프로그램북은 이들의 존재를 '서울시향+생활예술오케스트라'라고 소개했다. 계산할 때 우리는 보통 '+'를 누르고 '='가 내놓을 결과를 기

대하곤 하는데, 이번 공연 역시 그러한 기대감과 자세로 관람할 수 있었다.

지휘는 올해부터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월슨 응이 맡았다. 그는 2014년 홍콩에 기반을 둔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인 구스타프 말러 오케스트라(GMO)를 창단하여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를 겸하고 있으며,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강변음악회, 교육공연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세계로부터>라는 부제로 잘 알려진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의 4악장,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을 지휘했다.

악기별로 한두 명의 서울시향 단원들이 함께했다. 전문 연주자인 단원들이 소수로 참여함으로써 연주에 참여하는 시민 연주자들의 자율성과 참여성, 의지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니 이 연주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 악기들의 독주 부분이 많은 <신세계로부터>에선 연주자들의 실력과 노력의 땀방울이 빛났고, 조화로운 합주로 위풍당당한 선율을 뽑아내야 하는 <위풍당당 행진곡>에선 합심하여 빛은 지난 시간과 하나 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월슨 응 지휘자도 영상 인터뷰를 통해 "생활예술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전문 연주자는 아니지만, 전문 연주자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고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대단하다"며 이번 무대의 의미와 의의를 밝혔다.

이번 폐막공연을 위해 박정규가 특별히 작곡한 <아리랑 연곡>이 마지막 곡으로 연주됐다. 본조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토대로 동서양의 악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작곡된 곡이다. 두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외에도 이번 축제에 참가한 단체에서 하모니카, 만돌린, 가야금 등을 담당하는 단원들이 함께해 무대를 가득 채웠다. 해금이 시작한 아리랑 가락을 바이올린이 응답하고, 피리와 서양 관악기가 합창하듯 가락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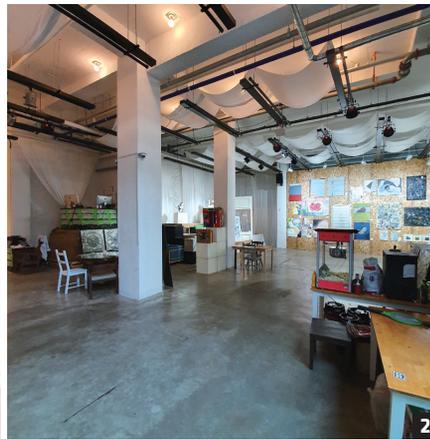
영상 인터뷰에서 한 남학생은 "생활예술이란 '자신감'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만의 공간이라 생각되던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의 참여와 환호로 후끈 달아오른 일요일 밤이었다. 돌아가는 길, 평소보다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이 낮아 보였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사진 서울문화재단, 손홍주

우리 모두 연극을 하고, 예술을 한다

연희예술극장

연희동은 고층 아파트 대신 정원 같은 마당을 지닌 주택이 많고, 주택지의 용도를 변경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언젠가부터 맛집과 카페가 많은 동네로 알려져 식도락가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문인들의 창작공간인 연희문학창작촌, 안산과 궁동산 일대에 들어선 소규모 갤러리, 문화와 예술을 키워드로 운영되는 개성 있는 복합문화공간들도 빼놓을 수 없다.



연희동에서 만난 예술공간

연희동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대로와 신호등을 벗어나 골목을 누벼야 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면 문화와 예술을 키워드로 운영되는 공간이 제법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연희예술극장’도 그런 공간들 중 하나다. 복합문화공간인 연희예술극장은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모티브로 한 카페 테아트르 형태의 공간으로, 자체 기획 콘텐츠와 공간 대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 콘텐츠의 공급자 역할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도 하는 것이다. 주변 공간들과 협업해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공간을 방문한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모한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의 선정 사업인 <2019 Becoming a Collector 연희동 아트페어>가 진행 중이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올해는 카페 보스토크×스페이스 공공

연희, 연희예술극장, 아터테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희예술극장의 전시도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취지는 작품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컬렉터들에게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습 기회를 주는 것. 신진 작가들에게는 미래의 컬렉터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다. 전시된 작품 중 마음에 드는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면 자신이 구매한 음료 금액의 10%가 작가에게 후원되는 시스템이었다.

11월에 진행될 행사로는 극단 51퍼센트의 <제목없는 연극>과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의 2019 서울형 장애·청소년 예술교육사업 결과 공유회 <다가감>이 있다. 중순에는 308아트크루×백진주의 <無와 Beautiful> 공연이, 월말에는 서울청년예술단×연희문학창작촌의 <시민문화희곡쓰기-나, 반려동물, 우리> 낭독공연이 진행된다.



- 1 서대문구 연희대로 2-3 B1에 위치한 연희예술극장의 입구.
- 2 전시 <2019 Becoming a Collector 연희동 아트페어>, 카페 보스토크×스페이스 공공연희 주최, 연희예술극장, 아티테인 참여.(2019년 10월 11일~20일)
- 3 플라멩코 공연 <사막흔레>, 연희예술극장×이혜정 공동 기획 공연.(2019년 9월 22일)
- 4 공연 <춘향전 VOL.1: Spring Is Coming>, 극단 이방인×연희예술극장 기획 공연.(2019년 1월 20일~2월 2일)

변주 가능한 공간

연희예술극장의 운영진은 극단 이방인의 단원들이다. 연극과 연출을 전공한 이들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간 명칭에 극장이란 단어가 들어가 주된 콘텐츠가 연극공연이란 생각도 들지만 딱히 그렇지 않다. 공연·전시·밴드공연·촬영·포럼·파티 등 모든 것이 가능하며,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구조도 변경할 수 있다. 극장이란 말을 쓴 건 근본은 극장에 있지만 극장의 고전적 이미지를 탈피해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운영진의 의도를 담은 것이다. 공간은 행사에 참여하는 관객들에게 “피곤하면 나갔다고세요”, “음료 드시면서 보세요”, “휴대폰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대관을 할 때도 행사 주최 측에 이러한 공간의 성격을 알려주며 협조를 부탁한다. 일례로, 올해 초 진행된 연희예술극장의 자체 기획 공연인 <춘향전 VOL.1: Spring Is Coming>을 들 수 있다. 이 공연은 무엇보다 그들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 공연이었다. 800여 명의 관객들이 다녀간 공연에서 관객들은 다섯 개의 무대로 나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연을 함께했다. ‘본다’가 아닌 ‘함께한다’가 중요한데, 관

객들은 무대 안으로 들어가 춘향이가 탄 그네를 밀기도 하고 무대 안의 전시물이 되기도 했다. 관객이 공연의 일부로 녹아든 것이다. 공연 중 맥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오퍼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가능했다. ‘연극의 틀을 탈피하려는 HAPPENING THEATER’란 수식어가 붙은 공연은 통상적인 연극 형식을 파괴했다. ‘HAPPENING’과 함께 표현을 극대화한 연출은 화려했고 전시관을 방불케 하는 미술적 형태의 무대와 국악과 섞인 현대적 음악, 패션쇼에서나 볼 법한 배우들의 의상에서도 드러났다. 공연 직후 매번 콘셉트를 바꿔 진행된 애프터파티도 있었는데, 연극이 어려운 문화가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공연의 평과 그 결을 같이하는 자리였다. 전통적인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연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앞서 말한 <춘향전 VOL.1: Spring Is Coming>과 같은 공연의 연출 방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해석과 평가는 개인의 취향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파괴적 시도가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주었다는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연희예술극장

대가들의 귀환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전곡 프로젝트>와 뮤지컬 <아이다>

‘공연의 계절’로도 불리는 가을, 올해도 굵직한 작품들이 전국 곳곳의 공연장을 채우고 있다. 뮤지컬과 연극, 클래식, 무용 등 장르와 국적도 다양하다. 늘어난 선택지만큼 관객의 고민도 함께 커져갈 터. 그래서 쏟아지는 명작들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대가의 공연 두 개를 꼽았다.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베토벤 해석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안드라스 쉬프의 내한 공연과 팝의 거장 엘튼 존, 뮤지컬 음악의 대가 팀 라이스가 꾸린 뮤지컬 <아이다>다. <아이다>는 올해를 끝으로 미국 브로드웨이 레플리카(음악과 노래 가사는 물론 안무, 의상 무대세트까지 오리지널과 같은 공연) 버전 공연을 마무리 짓는다.

거장의 손에서 흐르는 치열한 생존의 노래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전곡 프로젝트> 11. 12(예술의전당), 11. 13(아트센터 인천)

독일 본의 베토벤하우스는 2006년 안드라스 쉬프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쉬프의 유려한 베토벤 곡 해석 능력과 그를 향한 애정을 높이 산 것이다. 청중이 바흐, 슈만 등 레퍼토리에 한계가 없다고 평가받는 쉬프의 베토벤 연주를 유독 기대하는 이유다.

쉬프는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전곡 프로젝트’를 들고 한국을 찾는다. 세계 투어의 일환으로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5번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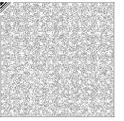
쉬프는 베토벤의 음악을 “절망 속에 빛어진 치열하고 실존적인 곡”이라고 정의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베토벤은 장티푸스, 매독 등으로 평생 병원을 드나들었고, 음악가로선 치명적인 청각장애까지 겪었다. 하지만 베토벤은 두 남동생에게 “가슴속 창작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고선 세상을 떠날 수 없다”고 밝히며 작곡에 몰입했고, 그 뒤로도 <운명>, <전원> 등 역작을 썼다.

쉬프는 베토벤 작품들의 최후 메시지는 항상 낙관적이라고 본다. 1818년 이후 모든 대화를 필담에 의존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베토벤은 1924년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직접 지휘하며 초연하는 등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 당시 연주가 끝난 뒤에도 베토벤이 계속해서 청중을 등지고 서 있자 알토 솔리스트였던 카롤리네 웅거가



©REPTA 스포츠

그를 돌려세운 일화는 유명하다. 청중은 베토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큰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쉬프는 “베토벤의 음악은 예술가로서나 인간으로서 한 인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쉬프의 이번 내한은 그가 창단한 오케스트라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999년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이 모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연주한 것을 계기로 20년간 호흡을 맞추고 있다.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가 한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 안드라스 쉬프의 연주 모습. (마스트미디어 제공)
 2 2016년 <아이다> 공연 모습. (신시컴퍼니 제공)

국내 73만 관객 이끈 스테디셀러의 마지막 공연

<아이다> 11. 16~2020. 2. 23,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뮤지컬 <아이다>의 브로드웨이 레플리카 버전이 마지막으로 국내 무대에 오른다. 작품을 제작한 디즈니 씨어트리컬 프로덕션이 올해를 끝으로 해당 버전의 전 세계 공연 종료를 결정하면서다.

팝의 거장 엘튼 존과 세계적인 뮤지컬 음악가 팀 라이스의 손에서 탄생한 <아이다>는 2000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토니상 작곡상 등 각종 국제상을 휩쓸었다. 국내에서도 2005년 초연된 이후 14년간 73만 명의 관객을 모아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극의 배경은 이집트지만 주제는 낯설지 않다. 이집트 사령관 라다메스가 노예로 잡혀온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에게 사랑을 느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라다메스가 약혼녀 암네리스 공주와 파혼하려 하면서 극의 긴장감이 커지고 중국에는 인물들이 참혹한 운명을 맞는,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작품이다.

음악 거장들이 합작해 만든 뮤지컬인 만큼 넘버 각각의 매력이 다양하다. 록, 가스펠, 발라드 등 장르를 넘나들고, 엄중한 안무부터 신

나고 윗트 있는 춤까지 변주가 많아 볼거리가 상당하다. 팝을 다루는 엘튼 존이 참여한 넘버이기에 귀에도 잘 감긴다. 화려한 무대 구성 역시 뮤지컬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1회 공연에 400번에 가까운 조명 큐 사인이 있다고 전해질 만큼 조명을 자주 바꿔 무대의 입체감을 살린다. 노을이 지는 듯한 주홍빛 무대와 배우들을 그림자로 표현하는 기술 역시 조명의 힘이다. 뮤지컬에선 드물게 여성이 타이틀 롤을 맡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한국 공연을 기념해 그간 <아이다>를 빛낸 주역들이 대거 모였다. 아이다 역의 윤공주부터 암네리스 역의 정선아와 아이비, 라다메스 역의 김우형이 모두 캐스팅됐다. 새롭게 참여한 배우로는 아이다 역의 전나영, 라다메스 역의 최재림 등이 있다. 이 중 정선아는 암네리스 역으로 2013년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정선아는 “내 뮤지컬 인생은 <아이다> 전과 후로 나뉜다”며 “마지막 무대에 더욱 뜨겁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글 신지후_한국일보 기자 사진 제공 마스트미디어, 신시컴퍼니

파격의 미술관

전시 <X사랑>과 <예술에 U*5G를 더하다>

최근 공중파에서 중계된 골프 경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티 샷 과정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에 토폰이 나면서 공이 100m도 나가지 않자, 갤러리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을 한 것이다. 결국엔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졌는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선수의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숙을 요하는 것은 비단 골프 경기장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부터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미술관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미술관에서는 정숙이 기본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하는 전시는 지금껏 알려진 이런 에티켓을 무시(?)해도 된다. 오히려 어떤 변칙을 허용했으며, 때론 그런 관용을 과감히 노려 눈길을 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X사랑> 10, 10~10, 25, 통의동 보안여관

“사랑합니다... 멍멍.”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카랑카랑한 외침은 마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의 그것과 비슷하다. 전시가 열리는 통의동 보안여관의 정문에 들어서자 흰색 와이셔츠를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가 빨간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여기에 답례하는 일부 관람객을 향해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개가 된 마냥 짖어댄다. 얼핏 봐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에 관람객들도 적잖이 당황해하는 눈치다. 1936년에 지어진 목조여관을 그대로 보존하여 이제는 서울의 상징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은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공간의 정체성을 오롯이 살려냈다. 시간이 멈춘 듯 1960년대 복장을 한 카운터의 노부부는 자장면을 먹으면서 투숙객(?)들을 반긴다. 오래된 나무로 뒤덮인 내부의 방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각양각색으로 펼쳐진다. 사전에 촬영한 영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퍼포먼스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는데, 공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각자의 해석을 담고 싶었던 것 같다. 12살 소녀가 들려주는 어른의 사랑이라든지, 실성한 듯 버려진 사랑에 울고 웃는 모습, 두 눈을 붕대로 가린 채 밧줄에 묶인 한 사내, 모니터에서 울려 퍼지는 힙합에

맞춰 부르는 판소리까지, 전시는 눈과 귀가 지루할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X사랑>은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던 김기라 작가와 김형규 작가가 함께한 첫 번째 전시이다. 전시를 기획한 김기라 작가는 이번 전시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오랜 세월을 걸쳐 작가로서 살아왔는데 지난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주위를 둘러보게 됐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내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년 사랑을 아니?’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앞서 열거된 퍼포먼스를 위해 직접 오디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힙합, 판소리, 연기, 영상, 설치 등 어느 하나에 치중하지 않은 다양성으로 사랑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을 금지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로맨스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작가의 의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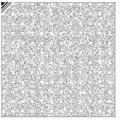
예술, 5G를 만나다

<예술에 U*5G를 더하다>展, 9. 2~2020. 2. 29,

지하철 6호선 공덕역사 내 U*5G 갤러리

“미술작품을 보고 싶으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세요.”

미술관에서 울리는 휴대폰 소리가 옆 관람객에게 방해가 될 거란 걱정은 붙들어 매도 좋다. 오히려 원하는 작품을 보려면 휴대폰을 꺼



1 전시 <사랑>
2 <예술에 U*5G를 더하다>展.



내라고 한다. 지하철 6호선 공덕역에서 내년 2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예술에 U*5G를 더하다>展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던 미술관 관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정숙한 실내 미술관이 아니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로 나온 미술관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상업광고를 줄이고 지하철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7년 개통된,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문화철도', 올해 녹사평역을 통째로 미술관으로 바꾼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예술에 U*5G를 더하다>展은 단순히 미술작품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관람객이 주도적으로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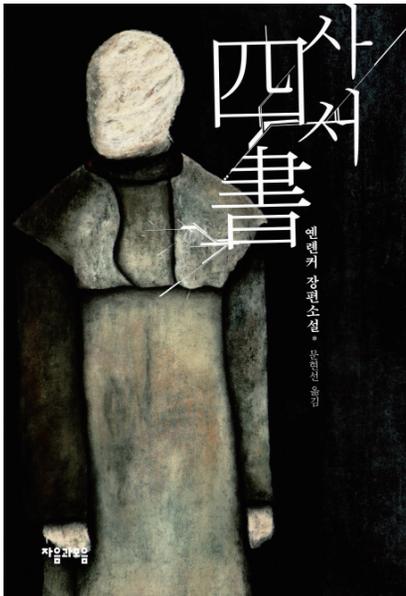
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팁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 현대미술 작가를 비롯해 무용수, 사진가,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손을 잡았다. '어떻게 하면 정적인 작품을 5G라는 신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문화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꼽히는 <리슨 투 더 댄스>는 여러 장르의 무용수들이 19세기 조선시대 궁중 향악정재(鄕樂正才)의 하나인 춘앵전(春鶯轉)의 무보를 듣고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그 몸짓을 360°로 담았다. 이는 관람객에게 단편적인 시선을 강요하지 않고, 어떤 방향에서도 원하는 몸짓을 볼 수 있게 한다. 어떤 이는 정수리에서, 어떤 이는 등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전시에는 24명이 총 88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특히 회화작품은 원본 작업을 디지털 이미지화한 후 움직임과 소리를 덧입혔다. 관람객은 해설을 얻기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뒤져보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해설에는 작가와 작품에 관한 정보부터 제작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글·사진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사진 제공 LGU*

노벨상의 계절, 심연으로 향하는 두 권의 나침반

책 〈사서〉와 〈사탄탱고〉

노벨문학상의 계절이 다가오면 어른거리는 두 이름이 있다. 중국 소설가 엔렌커(閻連科)와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호르카이 라슬로(László Krasznahorkai)다. 인류가 당연한 시계제로의 디스토피아를 다른 언어와 형식으로 써내려간 두 소설가는 매해 노벨상 후보로 집중 거론되지만 스웨덴 한림원의 선택은 매년 빛나갔다. 고집스럽게 디스토피아를 그려온 두 소설가의 내면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경외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엔렌커의 〈사서〉(四書)와 크러스너호르카이 라슬로의 〈사탄탱고〉는 심연을 보게 만드는 예리하고 거대한 나침반과 같다. 두 나침반을 품어 심연을 여행한 뒤 돌아왔다. 자신 있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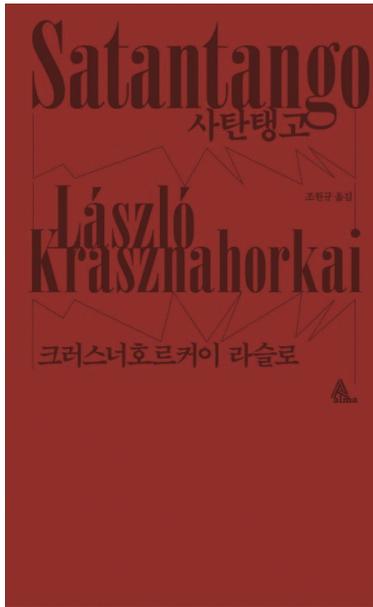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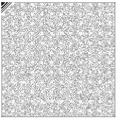
금서의 작가, 절망을 노래하다

〈사서〉 엔렌커 지음, 문현선 옮김, 자음과모음

〈사서〉의 줄거리는 이렇다. 황허강변 인근 강제수용소에 지식인들이 수용된다. 사상이 불충하다는 이유로 노동을 강요당한 지식인들은 신념이 꺾이는 폭압적 상황에 처하지만 항쟁도 도피도 불가능하다. 최고의 소설가였지만 국가에게 장악된 '작가'에게 소장은 잉크, 펜, 편지지를 쥐어주며 주문한다. "수용자를 일일이 감시해 7일마다 보고하라. 그러면 집에 갈 수 있다."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밀고자의 운명을 받아들인 작가는 반역자 보고서 '죄인록'을 집필해 아이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작가의 관심은 사실 다른 지점을 향해 있다. 잉크를 빼돌려 일생의 걸작 '옛길'을 몰래 쓰기 시작해서다. '죄인록'과 미완의 장편 '옛길'이 교차하는 액자식 구성의 이 소설은, 철학연구서와 신화소설 한 권을 추가로 덧대며 제목이 말하듯 '네 권의 책(四書)'으로 입체화된다.

인간의 노동력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의 농작물 생산에 내몰리면서도 수용자들은 귀향을 꿈꾼다. 현실은 안위를 허락하지 않는다. 흑



사(黑沙)를 모아 철을 제련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심지어 자신의 피를 뿌려 곡식을 재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근과 한파가 들이닥쳐 수용자가 죽어나가도 상부는 기별이 없다. '목표만이 남겨진 수용소의 날씨는 '절망'이다.

수용소 소장이 죽는 최후의 장면은 인간의 종교와 역사와 세계를 전부 끌어안으며 도약한다. 왜 작가가 수용소에 갇혔는지에 관한 비화도 설득력이 높다. 문화대혁명 시절의 중국을 고발한 엔렌커의 이 소설은 중국 정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모든 출판사에서 출간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20개국에서 결국 출간돼 '금서(禁書)'의 작가 엔렌커를 위대한 지성의 반열에 올렸다.

서울을 찾은 엔렌커를 작년에 단독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다. 오래전부터 그가 서사의 전략으로 언급한 신실(神實)주의를 정의해달라고 요청하자 엔렌커는 답했다. "현실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논리 대신 존재하지 않는 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진실에 가려진 진실까지 찾는 전략이 신실주의다." 엔렌커는 시대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위대한 소설가다.

메시아가 돌아온 집단농장, 구원은 어디에

〈사탄탱고〉 크러스너호르케이 라슬로 지음, 조원규 옮김, 알마출판사

〈사탄탱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실패한 집단농장에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산다. 돈 몇 푼에 악바리가 되어 막막한 생계를 이어가는 그들은 1년 반 전에 죽은 이리미아시와 페트리너가 농장으로 돌아온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는다. 누군가는 그들을 구세주로 생각한다. 완벽하게 망한 세계인 마을에 이상한 활기가 들기 시작한다.

초반의 종소리는 상징적이다. 주변에는 어떠한 교회도 없지만 소설에 첫 등장하는 인물인 후터키는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다. 종이 없는 종소리는 불길하고 불온하다. 그것은 청각으로 감각되는 디스토피아의 노크소리처럼 들린다. 마을 사람들이 환청을 공유한다는 건 실제 없는 희망을 일상에서 이명처럼 품고 사는 현대인을 은유해 낸다.

자, 죽지 않았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리미아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자는 과연 누구인지를 소설은 묻는다. 그들이 마주하는 건 디스토피아의 파멸뿐이다. 구원자로 기대감을 모았던 두 인물은 사실 죽었다가 되살아난 메시아는커녕 당국에서 좌천된 시정잡배였을 뿐이다. 방치된 세계에서 이념도 체제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한국엔 작년에야 출간됐지만 〈사탄탱고〉가 처음 발표된 시점은 1985년으로 동구권 해체 이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책을 번역한 조원규 시인은 "크러스너호르케이 라슬로가 그려낸 '몰락'은 정치적 저항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으리라. 이 작품은 한 시기의 체제 비판을 넘어서 좀 더 항구적인,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 문학으로 남았다"고 해설에 썼다.

올해 초 크러스너호르케이 라슬로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실패한 인터뷰가 다수였지만 이번 무응답은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그의 2015년 맨부커상 수상 소감에는 질문지로 보낸 10개의 물음을 무력화시키는 무엇이 있었다. "아마 나는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 같다." 엔렌커가 했어도 어색하지 않았을 말이란 상상은 필자만의 것일까.

글 김윤희_매일경제 기자
사진 제공 자음과모음, 알마출판사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뚝뚝...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마포구에는 문화예술공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원하는 공간을 찾기 힘듭니다.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포구(홍대, 신촌, 합정, 상수 등)는 청년문화의 메카라 불립니다. 그에 걸맞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간이 많고, 덕분에 청년문화도 한층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 즐겁지만, 가끔씩 많아도 너무 많아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고 입맛을 맞춰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 한 번씩 서울에 가야 공간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서울문화재단이라면 그런 애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하 서교공동운영단)에서 활동하는 남하나입니다. 저는 마포구 일대에서 축제를 만들며, 지역의 다양한 예술 활동 양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활동에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기획자이자 시각예술가입니다. 홍대 주변은 시대의 변화 속에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술공간에서부터 상업공간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모양도 다른 공간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색채를 띠며 활동하기에, 정보를 찾을 때 헤매는 경우를 저 또한 겪어봤습니다. 특히나 현재의 공간들은 골목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주 드나드는 이들이 아니면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정보를 얻는 법부터 나만의 공간 로드맵을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문화예술공간, 흐름 파악하기

1990년대 후반부터 마포구, 특히 홍대 앞에서는 음악, 공연, 시각, 거리예술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예술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특한 이름의 예술공간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겼죠.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극장, 갤러리와 같은 전형적인 공간에서 탈피하여 창작자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대안적 공간, 즉 '대안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2012년부터는 신진예술가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움직이는 공간, '신생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대뿐만 아니라 현재는 을지로, 문래동 등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생공간의 경우 단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짧은 생명력을 유지하기에 한 번 정보를 놓치면 다시 습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SNS의 확산으로 손 안의 세상에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SNS 파도타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호기심으로 만들었을 SNS 계정을 적극 활용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공간을 타고 타고 가다 보면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음악, 전시, 축제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만의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홍대 주변만 살펴봐도 음악 공연장으로 무대륙, 벨로주, 에반스, 제비다방, 고인물, 1969 등이 있으며, 시각예술 전시공간으로는 대안공간 루프를 시작으로 전시공간, 탈영역우정국, 합정지구, 별관, www space, 의식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서점도 마포구 일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원서점, 이후복스, 퇴근길 책 한잔, 공상온도, 서점 리스본, 책방 연희, 유어마인드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서점들이 독특한 큐레이션을 통해 독립출판물을 소개합니다. 또한 성격을 규정 짓기 어렵지만 카페와 바를 운영하며 살롱, 클럽의 기능을 하는 행화탕, 안티카페 손과얼굴도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시작으로 공간 곳곳의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파도를 타다 보면 하나의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로 가지치

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혹 자료를 찾기 어렵거나 한눈에 보길 원한다면 지역에 위치한 창작공간을 살펴봐도 좋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18개의 창작공간이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카테고리 안에서 지역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기, 지역 창작공간의 문 두드리기

현재 운영되는 창작공간 중 한 곳인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창작자들의 실험이 가능한 장소로 기능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공간을 활용한 실험실, 전시, 공연, 강연, 워크숍이 이루어집니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과 기획,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교공동운영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교공동운영단은 '홍대 앞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교육, 음악, 예술공간을 키워드로 기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 현장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연구조사, 출판, 프로젝트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 공간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공간교류사업 <같이, 가치>는 공간만의 기획을 활성화하여 동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간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간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선보일 올해의 <같이, 가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올해의 <같이, 가치>는 서로 다른 장르 간의 협업을 기대하며 기획했습니다. 나이, 성격, 위치도 다른 4곳의 공간이 모여 공간들만의 유토피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서교동 고인물, 예술의 변주가 가능한 아지트 합정동 안티카페 손과얼굴, 음악과 책이 만나는 염리동 초원서점, 시도하는 시각예술 전시장 망원동 www space 등이 모였습니다. 공간의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다시 상기하며, 공간의 유토피아¹⁾를 그려나가는 콘셉트로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간의 운영자는 해보고 싶었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공간을 만나고 새로운 예술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답변 남하나,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6, 7기

1 이번 프로젝트의 공통 주제로 홍대 앞 예술공간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공간이 숨 쉬는 유와 무의 의미 그리고 가치를 상상해봅니다.

무용가가 사는 집,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로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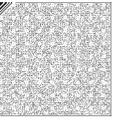


무용가 박명숙의 <혼자 눈뜨는 아침> 공연 모습.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1960년대의 시골 사람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경시대의 끝자락에 딱 붙어서 움직이거나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신념과 생활감정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게 참 힘들다. 몸은 노동자였으되 마음은 농부였던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늘 말했다. “돈은 치사한 것이다.”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이 내게 돈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심어줬다. 그 가르침 덕분에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늘 아등바등했다.

왜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글을 시작하게 됐을까. 이것 또한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다. 강남은 무턱대고 부자가 사는 곳이란 편견 때문이다.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 그곳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면 다 나온다. 이달의 공간은 강남의 역삼동이다.

1982년 무렵,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에 살고 있던 현대무용가 박명숙을 만나러 갔다. 역삼동 네거리엔 높고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중이었고 그 개발의 위용에 이미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건너편의 넓고 넓은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서 동(棟)과 동 사이를 얼마나 헤맸던지. 숫자가 적힌 안내판자가 여기저기 친절하게 박혀 있으면 내겐 나무숲을 헤매는 것보다 더 어지러웠던 기억이 난다. 참고로 이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박명숙은 네 살이 되던 해, 어머니로부터 장고를 배웠고 소녀 시절엔 발레를, 대학에선 현대무용을 전공한 무용가였다. 그를 처음 보자마자 자태와 매무세에 반했다. 그는 이미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웬지 '무용가 박명숙'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결혼과 예술 사이에 안전한 비무장지대를 마련해준 분들이 계셨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가 일하는 직장인 회기동의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실에도 자주 갔다. 무용이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하던 작은 방.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 소설가와 무용가의 차이를 알게 됐다. 작업을 오로지 혼자서 하는 소설가는 근원적으로 외톨이이며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총체적으로 짜다 이기 쉽다. 그런데 무용가는 달랐다. 그는 하나의 작품을 무용단과 함께 완성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독무를 추기도 하지만 거기엔 미술이나 음악, 영상과 의상 등은 물론 연출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품이 컸다. 박명숙은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잘 조화시켰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던 화가 최옥경의 집에도 놀러 다녔다. 최옥경은 베토벤의 6번 교향곡을 틀어놓고 박명숙에게 춤을 추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진의 〈님과 함께〉로도 춤춰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베토벤과 남진 사이의 춤사위를 구경하는 즐거움은 행운이었다.

이후 박명숙은 장편소설인 〈혼자 눈뜨는 아침〉을 안무해서 국내외의 수많은 극장에서 공연했다. 그가 소설을 춤으로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며 장르의 차이와 독립성을 알게 됐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등단하던 해, 신춘문에 당선작이던 〈확인〉의 한 문장을 최옥경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었다. 문장과 그림이 만나서 새로운 감성을 일깨우던 충격과 함께 박명숙의 춤도 소중한 추억이 됐다.

박명숙과 이웃으로, 그리고 사람 됨됨이의 안팎을 서로 휘젓기도 하면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이 되었다. 그사이 많은 일들이 서로의 삶에서 일어나고 지워지고 잊히고 기억의 창고에 쌓였다.

현대무용가인 그가 고관절 수술을 했을 때 그가 감당할 절망감과 슬픔을 지켜보았다. 회복기를 거쳐 마침내 후배의 무대에 섰을 때, 그 무대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렸다. 그의 절제할 수밖에 없는 춤사위에서 '숙명'이란 뜻을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최근에 오래도록 단들이 함께 살던 그의 아버님이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님이 함께 지내던 공간에 혼자 남겨진 칠순 가까운 딸의 공허가 마음에 짙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곤 한다. 그의 후배와 제자들이 차려준 환갑잔치에서 그의 아버님이 말했다.

“.....말도 말아요! 명숙이 때문에 집 몇 채 팔아먹었어요!”

대학교수 무용가가 월급으로 못 살고 집을 팔아서 무용단을 꾸리며 살았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무용을 떼어놓곤 상상할 수 없는 박명숙. 현실과 무용 사이의 다리는 누가 놓을까.

글 이경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사진 제공 박명숙

화려한 불빛 뒤 그림자를 봐야 할 때

아이돌에 대한 고찰

‘아이돌’(Idol)은 본래 우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시대가 바뀌고 연예계 스타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조금씩 변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이 단어를 두고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주로 가수를 이른다’라고 설명한다.

하나의 직업군이 된 아이돌

1992년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여러모로 아이돌의 본래 뜻에 어울리는 존재였다.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의 고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컸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이른바 ‘아이돌 1세대’ 가수들의 양상은 좀 다르다. 아예 이름에서부터 10대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선 H.O.T.(High-five Of Teenagers)는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다른 세대로까지 넓혀가진 못했다. 사실 애초에 그럴 의도도 없었던 게 더 정확할 것이다. 10대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스타 대신 자신들만을 위해주는 ‘나 또는 우리들만의 스타’에 더 열광하는 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바로 그 지점을 누구보다도 영민하게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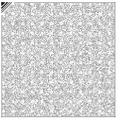
들었다. 이 시기부터 아이돌은 10대들의 사랑을 받는 댄스 가수를 지칭하는 말로 의미가 다소 좁아진다.

H.O.T.의 어마어마한 성공 이후 비슷한 가수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아이돌의 의미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10대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댄스 가수뿐만 아니라 이를 목표로 하는 비슷한 부류의 모든 가수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상관없이 일단 10대들에게서 인기를 얻고자 특정한 콘셉트를 가지고 데뷔한 가수들은 모두 아이돌로 불렸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앨범이 ‘폭망’해 인기가 전혀 없는 아이돌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가수들이 하는 음악은 ‘아이돌 음악’이라는 하나의 장르처럼 분류되기 시작했다.

아이돌은 이제 하나의 직업군이 됐다. 아이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등이 차지하던 앞자리는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연예기획사 오디션을 보고, 고되고 기약 없는 연습생 기간을 기꺼이 감내한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 온갖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아이돌이 현대판 계급상승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성공한) 아이돌이 되면 돈과 인기, 명예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죽어라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지 말지 불투명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갈지 말지 불투명한 세상에서 한 번에 수직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아이돌이라 믿는 것이다.

성공한 아이돌은 행복할까?

이런 믿음과 절박함에서 태어난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그 좁디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도전하는 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응원했다. 환풍기 수리공 허각이 <슈퍼스타K 2>에서 우승한 것은 성공신화 그 자체였다. 이



〈프로듀스×101〉, (CJ ENM 제공)

런 오디션 프로그램에다 아이돌 요소까지 결합하면 효과는 극대화된다. 바로 시즌제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탄생이다. 전문가 심사위원단 대신 100% 시청자 투표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는 ‘국민 프로듀서’ 개념은 나만의 아이돌 스타를 내가 직접 키운다는 판타지를 자극해 사회적 신드롬까지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환상은 얼마 안 가 허울뿐인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프로듀스×101〉의 최종 합격자가 정해진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투표 조작 의혹이 일었고, 이는 수사를 통해 점차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아이돌의 공정성 신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애초 아이돌 세계에서 100% 엄밀한 공정성이 가능하긴 했던 것일까? 아이돌 그룹은 철저한 기획의 산물이다. 아이돌 그룹을 구성할 때 멤버들의 능력, 외모, 성격, 캐릭터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포지션을 정해도 성공할까 말까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구성을 오롯이 시청자들에게만 맡기겠다는 걸,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조작할 줄은 몰랐다는 게 알리바이라면 알리바이일 터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신화를 만들고 그 과실을 나눠 먹으려는 방송사와 연예기획사들의 구린 공생관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성공한 아이돌은 행복할까? 일반화하긴 그렇지만, 최근 설리의 사례에서 보듯 마음의 병을 얻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연습생 생활, 어렵게 데뷔한 이후에도 끝날 줄 모르는 경쟁 속에서 언제 추락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나날들, 개인 영역을 침범당하기 일쑤고 비수보다 날카로운 악플과 선정적 보도에 시달려도 꼭 참아야만 하는 환경... 돈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이런 고통은 감내할 만한가?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팝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그림자가 있다. 이젠 그 그림자를 봐야 할 때다.

글 서정민 한겨레 기자

주택 지표종의 보고(寶庫)

증산동, 1970년대 신흥주택 단지

불과 50여 년 만에 한 나라의 주택이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50%를 넘어섰다. 단독주택은 약 32%를 차지하지만, 소유 구조가 아니라면 공동주택에 가까운 다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하면 단독주택은 희소한 주택 유형이다.



서울의 주택을 뒤바꾼 세 가지 주택 유형이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뒤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도시한옥으로 현재 북촌에 잘 남아 있으며, 두 번째는 1970년대 아파트(단지)로 현재 강남 지역(영동지구)이 대표적으로 잘 남아 있다. 세 번째는 1980년대 다세대·다가구로 서울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세 유형은 모두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개발에 개입해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로 개발된 증산동 신흥주택 단지도 대표적 주택 유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으나,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희소해졌다. 하지만 증산동 신흥주택은 변화의 기로에 선 시기의 주택 유형이며,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와 주택 문화가 잘 기록된 지표종이다.

‘증산동 30만 평 택지조성시대 원매자 많으나 거래 뜸’.

〈매일경제〉 1974. 1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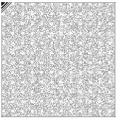
“서울시가 금년 말 완공 예정으로 30만 평의 택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증산동 역촌추가지구 구획정리예정지 일대는 (중략) 이곳 땅값은 금년 말까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략) 주민들은 또 대부분이 전답으로 현지 주민들의 소유였던 30만 단지 내의 토지가 구획정리가 늦어져 농사 일거리가 없어진 데다가 지금까지 겹쳐 주민들이 환지를 받기 전에 헐값으로 팔아넘겨.”

‘날개 돋친 전세’.

〈매일경제〉 1974. 10. 18

“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른 투자성향의 변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생활양식의 변화는 봄, 가을만이 이사철이라는 재래의 주거 이전 관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략) 구옥이 많고 주위가 안정된 주택지 등에서는 2백만~3백만 원 단위의 소규모 주택이, 신흥개발지 등에서는 4백만~5백만 원 규모의 신축주택이 (중략) 서대문구의 갈현동, 역촌동에는 최하 600만 이상의 비교적 고급주택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구옥이 많고 개발이 늦은 증산동 일대가 평당 2만~3만 원 선으로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증산동 주택 단지는 서울시가 1972년부터 역촌지구로 개발하기 시작해 1974년 역촌추가지구로 30만 평의 논밭을 택지로 개발한 곳이며, 주택은 주로 1970년대 중후반에 지어졌다. 1970년대는 도시 개



1 10m 도로로 구성된 블록 구조에 6m 내부도로를 따라 줄지어 지어진 박공지붕의 신홍주택 단지.
 2 대지 약 50평(165㎡), 건축면적 약 60평(200㎡)의 신홍주택.
 3 중산동 신홍주택 단지의 난간과 담장 장식들.

발과 함께 경제 상황, 사회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고, 주택은 그 중심에 있었다.

1962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으나, 사람들은 주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아파트의 당시 상황을 소설가 조정래는 <비탈진 음지>에서 “머리 위에서 불을 때고, 그 머리 위에서 또 불을 때고, 오줌똥을 싸고, 그 아래에서 밥을 먹고”라며 이상한 공간으로 묘사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단지와 함께 청량리 도시한옥, 중산동 단독주택 등이 함께 개발됐을 것이다. 이렇게 1970년대는 어떤 주택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었다.

주택에 대한 취향

중산동 신홍주택은 보통의 주택과 별반 다른 것 없이 보일 수 있지만, 1985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법적으로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다가구는 대체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져 개별 필지의 난개발로 이루어진다. 반면 신홍주택 단지는 블록을 구성하는 10m 도로가에는 양쪽으로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고, 도로에 면해 담장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 나무를 심고 마당을 만들었다. 다가구는 대체로 법이 허용한 최대치

인 3층(지하층 제외)으로 개발하고, 방공호로 만들어진 지하층까지 주거공간으로 변용했다. 신홍주택은 박공지붕으로 된 2.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가구는 옆집이나 도로와 간격이 거의 없고, 외벽에 매달린 외부 계단을 통해 각층과 옥상까지 기능적으로만 연결한다. 신홍주택은 지하층이 없고, 1층과 2층은 대문을 지나 공유된 마당에서 각각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를 띤다.

중산동 신홍주택의 특징은 무엇보다 담장과 난간의 장식에 함축되어 있다. 집집마다 다양한 장식으로 자신들의 집을 표현하고, 외부와 면하는 담장과 대문 등을 정성 들여 장식한다. 이에 비해 아파트나 다세대 등의 최근 주택들에서 외부 공간은 주택의 영역으로 인지되지 않기에 도시와의 접점은 버려진 곳에 가깝다. 이는 빠르고, 크게, 많이 짓는 것에만 맞춰져 대량으로 건설되고, 내부 공간만을 지향하는 폐쇄성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공간의 장식은 단순히 미학적 가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마을과 도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지표다. 하지만 이런 가치도 평가받지 못한 채 하나둘 장식이 부서져나가고, 신홍주택은 다세대·다가구로 아파트로 빠르게 개발되며, 이젠 파괴의 지표종이 되었다.

글·사진 제공 정기환_건축학 박사,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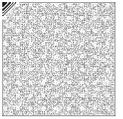
우리 별도 잘못하지 않았어

조쉬 분 감독의 <안녕, 헤이즐>

※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서 청춘인 것은 아니다. 청춘이라 아프기도 하고, 아픈 청춘도 있겠지만, '아픔'이 청춘의 전유물인 것처럼, 청춘이니 감당해야 한다는 듯 표현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성세대의 언어 같다. 솔직히 삶을 감당하고 버텨 살아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숙제다. 때론 힘들지만 가끔은 웃고 행복하기도 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으면 서로 여전히 살아야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일 것이다. 조쉬 분의 영화 <안녕, 헤이즐>은 몸이 아픈 청춘의 이야기다. 물론 몸이 아파서 마음도 그만큼 아프다. 하지만 <안녕, 헤이즐>은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짧은 삶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무척 현명하고 따뜻하다.





아픔과도 소통하며 자라는 청춘

〈안녕, 헤이즐〉은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지만, 청춘 영화의 공식 속에 명민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깔아두고, 울컥하는 눈물과 잔잔한 감동, 포근한 감성까지 놓치지 않는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여전히 그 나이 또래의 고민과 사랑을 겪으면서 훌쩍 자라는 성장담이며, 그런 아이들을 감싸는 부모들의 마음까지도 다독거린다. 그렇게 〈안녕, 헤이즐〉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과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풋풋하고 따뜻한 사랑을 예찬한다.

예상대로 헤이즐이 그토록 원했던 작가 피터와의 만남은 예측을 벗어난다. 이는 다시 한 번 삶을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런 점에서 ‘안네 프랑크의 집’ 장면은 헤이즐과 관객들이 함께 겪어야 하는, 초조하고 숨 막히면서도 동시에 극복 가능한 성장담이 된다. 안네 프랑크의 집에서 녹음된 목소리는 계속 이렇게 되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빛과 희망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안녕, 헤이즐〉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말을 향해 정해진 방식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뻔해 보이는 이야기는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진다. 마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추도식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그리고 잔잔한 감동은 도식적이지만 따뜻한 진심을 담고 있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아이들의 삶을 애써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 덤덤한 화법은 신선하다. 헤이즐과 어거스터스가 데이트를 즐기는 해골 놀이터처럼, 영화는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조쉬 분 감독은 죽은 후 망각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헤이즐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던 작가조차도 스스로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알코올 의존자이

자 찌질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헤이즐의 과도한 집착이, 죽은 자를 기억하기보다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줘야 한다는 성찰로 이어지는 극의 구성은 단순한 청춘 영화 이상,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안녕, 헤이즐〉은 아프니까 청춘이지, 라는 기성세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멘토 대신, 실연당한 친구를 위해 계란을 준비하는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영화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소박한 마음이 영화의 밀도와는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진다.

원작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

자칫 신화에 빠지기 쉬운 이야기를 기막힌 청춘의 성찰로 끌어가는 데는 존 그린의 원작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고민을 매끈하고 경쾌한 로맨스로 풀어내는 작가의 빼어난 문구들은 영화가 자칫 유치해지는 순간, 영화 속 명대사가 되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담배를 물고만 있는 소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소녀의 캐릭터도 입체적이고, 소박한 이야기 속에 삶의 성찰을 담아내는 문장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원작소설의 제목인 〈The Fault in Our Stars〉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인용했다. 시저의 암살 음모를 주도한 카시우스의 “잘못은 우리 운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네”라는 말에서 나왔다. 개인에게 닥친 행운과 불운은 운명의 탓이 아니라, 결국 본인이 과거에 내린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원제를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로 의역한 한국어 제목은 매력적이지만, 존 그린은 원작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수는 운명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가 미처 품어내지 못한 더 매력적인 이야기는 책으로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SPO 2020 SEASON OPEN!

2020 시즌 티켓 오픈!

2020 SEASON
with
Music Director
Osmo Vänskä

전체 패키지

11. 19.(화) 오전 11시 ~ 11. 24.(일)

*유료/후원 회원 대상 최대 30~40% 할인

11. 21.(목) 오전 11시 ~ 11. 24.(일)

*무료 회원 대상 30% 할인

개별 패키지

11. 26.(화) 오전 11시 ~ 11. 27.(수)

*유료/후원 회원 대상 20~30% 할인

*무료 회원 대상 20% 할인

나만의 패키지

11. 28.(목) 오전 11시 ~ 12. 29.(일)

*5개 공연 이상 묶음, 15% 할인

개별 공연 티켓

12. 03.(화) 오전 11시 오픈

*유료/후원/무료 회원 대상 10% 할인

예매문의: 콜센터 1588-1210 (평일 9시~18시)

www.seoulphil.or.kr  facebook.com/SPO  @seoulphil  @seoulphil



web+ 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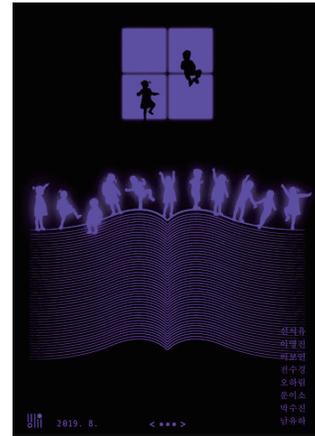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쓰다〉 20호 포스터. (웹진 [비유] 제공)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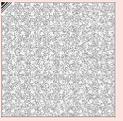
아이가 달려간다. 작은 공을 멋지게 걷어차고 좋아한다. 휴대폰 속 영상을 거둬 돌려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이 글을 쓰면서도, 아이가 겪었을 환희의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걸 멈출 수 없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을 사랑하고, 아이가 앞으로 겪을 계획된 일과 우연한 일 모두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한 존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내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중인데, 그저 아이를 보고 웃느라 내가 달라지는 줄도 모르는 나날이다. 그게 벌써 26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아기는 길에서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일단 얼굴부터 들이밀고,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일 만큼 자랐다. 어떤 아이로 자랄까 상상하는 즐거움이 크다. 부모 도움이 필요한 연령대의 모든 아이에게 눈길이 가는 이유다. 아이는 금세 자랄 것이다. 아이의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라 매 순간 당황만 하다가 관계가 어긋날까 무섭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빛나간 노력과 실수가 양해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재능이 무엇이든 자기를 믿는 아이로 자란다면 좋겠다.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동화 〈무회전 킥〉, 전수경

초등학생 유진은 같은 반 친구 세호가 반 대항 축구 시합에서 날린 무회전 킥을 본 순간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걸 느낀다. 말 그대로 “뽀뽀처럼 휘어” 골대로 날아가는 세호의 슛은 반을 승리로 이끈다. 이제 이 여자아이의 머릿속은 세호의 발끝에서 골대로 이어지는 공의 신비로운 움직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던 중 유진은 친구 수미의 도움으로 세호에게 킥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토요일 낮에는 공원에 나가서 연습을 했고 밤에는 방에서 두루마리 휴지로 연습을 했다. 밥을 먹을 때도 유벤티스 FC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와 우리나라 여자축구 국가대표 정설빈 선수의 무회전 킥 동영상을 시청했다.

일요일 저녁이 되자 마음만은 거의 무회전 킥의 달인 호날두가 된 것 같았다. 월요일 저녁이 기다려졌다. 이번 예야말로 무회전 킥을 성공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왔다. _〈무회전 킥〉 부분



유진은 무회전 킥을 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축구선수가 될 것이 아닌 바에야, 공 차는 기술 하나를 익힌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독자라도 유진의 노력을 비웃지 못할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비웃어도, 킥이 성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유진은 공을 차고 또 찬다. 그러니까 애초 연습의 성패는 무회전 킥이 실제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아이는 공을 차고 또 찬다. 아이에게 이 과정만큼 중요한 건 없다. 언젠가 이 운동장을 벗어난 유진은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유진은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이가 얻을 것은 무회전 킥을 차는 법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면이다.



〈쓰다〉 10호 포스터. (웹진 [비유] 제공)

소설 〈스노우볼〉, 김성중

이야기는 주인공 '나'가 6인 병동에 입원하며 시작된다. 전직 수녀라는 할머니 둘 사이에 침대를 받은 '나'는, 그들 때문에 귀찮은 일도 겪고 그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조금씩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두 할머니는 수녀원에 업둥이(‘현무’)로 들어온 갓난 아기를 함께 돌보다가 결국은 수녀원을 나오기로 한다. 그리고 그들이 수녀원에서 누리던 안정된 삶은 수녀원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너무나도 순식간에 위협받는다.

현무가 오기까지 그들은 스노우볼 같은 세상 속을 살아왔다. 언제나 눈보라가 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작디작은 세상에서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외롭지만 단정하게 살았다. ……(중략)…… 그런데 젓먹이가 나타나 모포를 뒤집듯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엄마가 되어 자식이 주는 핍박을 감내하고 있었다. _〈스노우볼〉 부분

두 할머니는 수녀원 바깥에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리면서도 신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한다. 두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현무는 건강하게 자랐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 할머니들은 사고로 입원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행복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신의 섭리 안에 존재하며, 자기들 손에 자란 현무의 삶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무는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세계’ 바깥에 존재한다. 현무는 할머니들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를 키운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세계를 존중한다.

부모는 아이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아이의 삶에 테두리를 씌우고 싶어 한다. 자신들이 믿는 것을 아이도 믿기를 원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취를 아이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이 아이를 좋은 어른으로 만든다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두 작가의 글을 읽으며 나의 최선이 그들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거듭 깨닫는다.

공 차는 아이를 떠올리며 나는 아주 나중의 일을 상상해본다. 스노우볼처럼 천천히 눈이 내리는 나의 세계를 앞에 두고, 나의 아이도 현무처럼, 함께하는 동안 괜찮았다고 말해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아이도 유진처럼, 자기 세계의 운동장을 향하여 얼마든지 달려가도 좋겠다.

글 김잔디_ [비유] 편집자

공연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

월간 <여덟 갈피>

아날로그식 소통이 갖는 의미

월간 <여덟 갈피>는 공연칼럼니스트 장경진과 아트디렉터 정명희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매체로 매월 초 A5 사이즈, 여덟 페이지로 발행된다. 마치 공연 팸플릿을 접어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시각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각 페이지는 '어제의 흔적'(리뷰), '오늘의 담소'(인터뷰), '내일의 기대'(기대평), '밤의 상념'(에세이), '한 잔의 그림'(웹툰)으로 알차게 꾸러지고 그달의 기억(작품의 대사)을 담은 월력이 굵조로 포함되어 있다.

사실 종이 매체를 새롭게 만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매체의 종류에 대한 것이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심지어 책도 전자책으로 읽는 시대에 왜 하필 종이 매체를 선택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덟 갈피>가 종이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다년간 웹 매체에서 일했던 <여덟 갈피>의 운영진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그동안 작성해왔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공연에 대한 콘텐츠들은 숙명적으로 기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마련인데, 그 기록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렸으니 배신감을 느꼈을 법도 하다. 그때부터 손에 잡히는 매체에 대한 갈증이 시작되었고, 매체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서 당연히 종이 매체를 선택했다. 무엇보다 종이 매체는 눈앞에서 소비된다는 점, 그만큼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사적이고 내밀한, 그래서 더 친숙한

<여덟 갈피>를 만든 동기는 공연이 너무 좋아서였다.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 공연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 일이 직업이 되고 나니 공연을 보는 일이 부대끼게 되었다. 매일 공연을 보고는 있지만 미처 소화되지 못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예전처럼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직접 매체 만들기에 뛰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여덟 갈피>의 글쓰기 방식은 사적이고 내밀하다. 기본적으로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도 운영진들의 취향에 따른 것이고, 특히나 에세이는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최근 자신에게 와닿은 뮤지컬 넘버의 가사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인에게나 털어놓을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단상들을 조곤조곤 풀어놓는 식이다.



월간 <여덟 갈피>. (사진 출처 <여덟 갈피> 인스타그램)

일반적인 연극 매체에서 에세이 코너가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해도 대부분 연극계의 이슈와 관련된 자유 기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는 늘 연극계의 화두, 사건, 소식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공연을 본 개인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평론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평론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대를 본 것 같은 생생한 묘사와 기록, 작품에 대한 평가, 작품의 만듦새에 대한 조건,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 등이다. 이런 글쓰기의 방식에서 언제나 '객관적인 시각'이 강조되고 개인적인 감상이나 사적인 이야기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공연에 대한 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한다. 어떤 글은 무대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과 기록으로 다 읽고 나면 마치 한 편의 공연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글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넓은 스펙트럼 어딘가에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연과 함께 들려주고 말을 거는 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덟 갈피>가 지향하는 것은 공연 관련 매체의 다른 영역들, 요컨대 철저히 독자들을 향한,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들의 공유다.

오늘날 매체를 운영하는 일

월간 <여덟 갈피>는 독립출판물로서의 길을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소수여도 꾸준히 자신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체를 만들고 기존에 연재한 에세이와 웹툰을 엮어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공연 관련 매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만한 자본을 갖는 일은 실로 어렵다.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책을 팔긴 어렵고 웹진에 쓰는 글도 돈이 되지는 않는다. 대단한 수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주머니를 많이 털지 않으면서 매체를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잠재적) 독자가 있는 만큼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실험되어야 하고 그걸 담아내는 매체의 형식도, 이를 출판하고 유통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월간 <여덟 갈피>가 흥미로운 것은 이런 대목에서다.

#월간 <여덟 갈피>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lifted_lab

글 김태희_연극평론가. 한국연극사를 공부하며 연극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shykth@hanmail.net



춤+여기

“내가 나보다 더 큰 공간과 흐름의 일부임을 몸으로 실감합니다”

현상과 관점에 ‘몸’을 부여하는 안무가, 허윤경



광화문 서커라 횡단보도, ©Fatobee_양동민



웹진 [춤·in]

1.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프리랜스 안무가이자 퍼포머, 무용수로 활동하는 허윤경입니다.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서 직접 몸으로 움직임을 구현하거나, 여러 가지 맥락에 맞는 움직임을 고안하는 일을 합니다. 몸은 세상과 관계 맺는 하나의 관점이자 어떤 가능성에도 열려 있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연을 '현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스스로 설명해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과 관점에 '몸'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춤을 보고 있는 관객의 몸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내적인 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2. 당신에게 이곳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경기도에 살지만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동서남북 전역을 골고루 다니는 편인데, 이곳은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갈 때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걸어서 '지나가게' 되는 여러 길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극장부터 미술관, 야외 돌바닥에서 나무 위까지 다양한 무대에 서왔습니다. 이 길 주변만 해도 제가 서본 '무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을 할 때, 공간을 생각하고 장소에 대한 리서치가 많이 필요한 작업도 있다 보니, 각 공연 장소들에 대한 정보는 꽤 남아 있지만, 도리어 거의 매일 다니는 이 길에 대해서는 지나쳤던 게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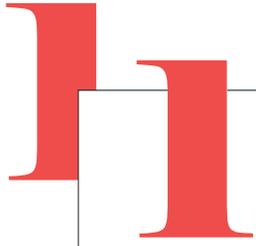
3.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하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여기가 아닌 저기서 일어날 다음 일에 대한 생각과, 맥락 없는 명 때림과, 바쁘게 지나가는 만큼 빠르게 닦쳐오는 지금 당장의 감각들이 마구 섞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각자 몸 안에 이러한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겠지요? 지나쳐가기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언할 수 없는 의미들과 감정과 작고 큰 목소리들이 피부를 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4. 이곳에서 춤은 어떤 모양인가요?

내가 나보다 더 큰 공간과 흐름의 일부임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을 만날 때, 몸을 여미고 지나가기도 하고 마음먹고 머무르면서 서로 몸이 맞닿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모두가 '지나가는' 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공간의 일부가 되고, 절실한 외침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능태의 몸들이 빠른 걸음으로 각자 지나갑니다. 수많은 무대가 서고 없어지고 다시 서면서, 퍼포머와 관객도, 그들이 만든 공간의 지형도 계속 바뀌며 이 장소의 역사가 됩니다.

아티스트 소개 허윤경은 꾸준히 다양한 작업에서 퍼포머와 안무가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몸과 움직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으로 만나게 되면서부터 공연예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몸 대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대 언어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함을 발견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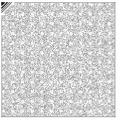


서울 문화 매뉴얼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삼일로창고극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결과 전시 <세상의 중심에서>(~11.15) ■ 전시 <573돌 한글날 : 다시 보는 한글, 다시 보는 한글>(~11.4)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놀이터 <디자이너의 시각형>(~11.5) ■ 2019 서울청년예술단x 서울예술치유허브 <맘마이사운드> @뚝촌(10.5), @서울예술치유허브(10.12) ■ 2019 서울여성합창 페스티벌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놀이터 <수직에서 수평으로>(~11.27) ■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휴먼 푸가>(~11.17) ■ 2019 MEET <오! 늘 공장>(~11.14) ■ 다른 감각과의 만남, 공동창작 워크숍 결과 전시 <멀티탭: 감각을 연결하기>(~11.10) ■ 국립발레단 <호이 랑>(~11.10)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장이 전해주는 메시지 - 쇼스타코비치 & 라스카토프> ■ 박다원 초대전(~11.11)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 ■ 전시 <세종 컬렉터 스토리 (sejong collector story)>(~11.12)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문화재단 수오 오페라 <오페라극장에 간 샤넬 편> ■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 연극 <오후 두시의 고독>(~11.17) ■ 연극 <뮤 하트>(~2020.1.9)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셀프모니터링 (Self-monitoring)>(~11.18)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로창고극장 기획 프로그램 <창고개방>(~12.1) ■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챔버 콰이어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놀이LAB> 사업 결과 공유 전시 (~12.29)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하트투하트 콘서트> ■ 2019 신진국악실험무대 <청춘 가락 마당>(~11.20) ■ 전시 <초록과 황금의 나라>(~12.1)
<p>25</p>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트레저 헌터스>(~11.30) ■ 서초문화재단 심산 영화관 <패왕별희> ■ 연극 <노인과 바다>(~12.1) ■ 뮤지컬 <그리스> - 서울(~2020.2.2) ■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2020.2.2)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 상상력발전소 시리즈포럼> '서울몽타주' @홍대 라이즈호텔 5층 Space(~11.29) ■ 서초문화재단 수오 오페라 <빅토르 위고 그리고 리골렛토 편>



THU	FRI	SAT	SU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놀이터 <소리로 놀자, 음악동화 공작실>(~11.22) ■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 3차 콜로키움 '공동체로 살아가기' ■ 2019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 국립현대무용단 <검은 돌: 모래의 기억>(~11.3) ■ 연극 <물고기 인간>(~11.1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우주정거장 : 전통의 축소> ■ <힐링데이> : 청소년을 위한 '예술×힐링 아지트'(~12.14) ■ 삼각산시민청 모여모여 페스티벌 ■ 오페라 <돈 조반니>(~11.2) ■ 전시 <민화의 비상(飛上)>(~11.9) ■ 뮤지컬 <해적>(~12.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다کم 선정자 권희수 전시 <반의반시반>(~11.7) ■ 소액다کم 선정자 이지연 전시 <살과 살>(~11.13) ■ 2019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스윗 홈>(~11.13)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11.3) ■ 전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11.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놀이터 <도화지를 뚫고 나온 드로잉>(~11.14) ■ 2019 MEET <노동의 몸짓 : In The Box 쇼케이스> ■ <힐링데이> : 어른을 위한 '어른이 되면 : 시네마 힐링 프로젝트'(~12.12) ■ <취하다 아트페어: How to feel>(~11.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단행본 <싼의 아이들> 출간기념회 ■ 2019 서울청년예술단×문래예술공장 선정단체 '자연과 사회' 결과 발표 전시(~11.10) ■ 연극 <우리별>(~11.1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문래 여성의 일> ■ 융합예술교육 워크숍 p데이 ■ 소액다کم 선정자 조율+위지영 공연 <Space 4 AWOL> ■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활짝연극제> ■ 바스락콘서트 <살롱 드 오페라> ■ 한마음살림장 <캐릭터, 아트토이 플라마켓>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11.10) ■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11.10) ■ 무계원 기획전시 <오색찬란! 나전>(~11.10) ■ 전시 <오즈의 미술관>(~11.10) ■ 전시 <Into Drawing 40>(~11.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재개관 기념공연 I ■ <장애인창작아트페어>(~11.17) ■ 연극 <미라클>(~11.2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재개관 기념공연 II <오페라 VS 뮤지컬> ■ 국립합창단 제20회 데뷔콘서트 ■ 무용극 <로미오와 줄리엣>(~11.16) ■ 연극 <인테리어즈>(~11.17) ■ 연극 <올모스트 메인>(~11.17) ■ 오페라 <카르멘>(~11.1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청년예술단×서교예술실험센터 타닥 쇼케이스(~11.17) ■ 소액다کم 선정자 손나예 공연 <헛수고 프로젝트>(~11.17) ■ 2019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평범한 날들>(~11.27) ■ 2019 서울청년예술단×연희문학창작촌 <여기는 오디오 극 - 詩로, 서로, 위로>(~11.2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11.17) ■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11.17) ■ 전시 <양혜규 : 서기 2000년이 오면>(~11.17) ■ 연극 <오피스>(~11.17) ■ 연극 <에쿠우스>(~11.17) ■ 전시 <하이메 아온, 숨겨진 일곱 가지 사연>(~11.1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선포식 ■ 청소년극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12.15) ■ 연극 <특특>(~2020.2.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청년예술단×문래예술공장 선정단체 '소닉픽션' 결과 발표 공연(~11.23) ■ 2019 서울청년예술단×서교예술실험센터 톨킷 세미나 ■ 2019 서울청년예술단×서교예술실험센터 톨킷 전시(~11.29) ■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 4차 콜로키움 '사회와 예술치유'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산타와 빈 양말>(~12.29) ■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2020.1.2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두더지손의 드로잉으로 골목 읽기>(~11.30) ■ 2019 서울청년예술단×연희문학창작촌 <시민문학회곡쓰기-나, 반려동물, 우리> ■ 전시 <동대문패션의 시작, 평화시장>(~11.24) ■ 버스킹 음악극 <432hz>(~11.2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HOT STAGE -영아티스트> '모던 & 클래식' ■ 뮤지컬 <보디가드>(~2020.2.2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문화재단 렉처콘서트 <바르크, 인간성과 다양성의 역동적인 스펙트럼>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 전시 <뮤지엄 오브 컬러>(~2020.3.1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고라: 매미의 문장> 라운드테이블 ■ 토요일은 청이좋아 <만짚청> ■ 서초문화재단 피아노 토크 콘서트 <첼로와 피아노로 듣는 클래식 명곡> ■ 뮤지컬 <파이팅콜>(~11.30) ■ 전시 <푸룻푸룻 서교대공원>(~11.30) 	



국립현대무용단 <검은 돌: 모래의 기억>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의 2019년 신작. 안성수 예술감독은 무용수 본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해, 몸의 언어와 음악 사이의 합일점을 찾아가다.
일시 11월 1일(금)~3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문의 02-3472-1420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우주정거장 : 전통의 축소>
 월드뮤직 팀 반디(VANDI)가 우주공간의 신비로운 형상을 앰비언트 뮤직과 사운드 디자인, 미디어아트와 결합하여 표현하는 음악 공연이다.
일시 11월 2일(토) 오후 7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2만 원
문의 02-2676-4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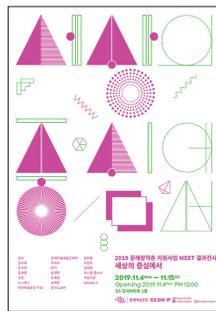
<힐링데이> : 청소년을 위한 '예술×힐링 아지트'
 매주 토요일, 자유롭게 놀러 와 나, 친구들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찾고 창작해보는 시간이다.
일시 ~12월 14일(토) 매주 토요일 10시~정오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3층 미술실
참가비 무료
문의 02-943-9300



삼각산시민청 모여모여 페스티벌
 시민기획단이 직접 주도해 전 연령 맞춤 공연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5시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900-0083, 4300, <http://sg.seoulcitizenshall.kr>



2019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스윗 홈>
 유승희 작가는 우리가 처한 가혹한 현실을 독특한 형상들의 조합으로 재구성했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인 '집'을 통해 치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일시 11월 3일(일)~13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결과 전시 <세상의 중심에서>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과 GS홈쇼핑이 함께 문래창작촌의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의 결과 전시이다. 선정 예술가·단체 20팀이 6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4일(월)~15일(금)
장소 GS강서타워(영등포구 선유로 82)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2019 서울청년예술단×서울예술치유허브
〈밤-마이-사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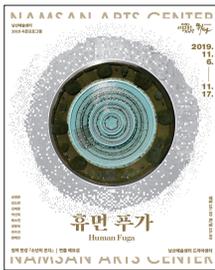
청년예술단체 복태와 한군이 영유아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한 시민 참여 워크숍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창작 공연을 선보인다. 목소리(voice), 소리(sound), 시(text)가 결합된 치유적 속성의 공연이다.

일시 11월 5일(화), 12일(화)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장소 5일 몸춤(마포구 성미산로 25, B1),
12일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7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휴먼 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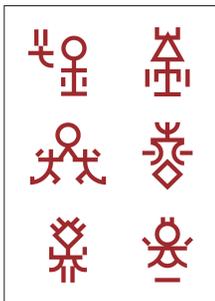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휴먼 푸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제재로 남겨진 자들의 기억과 증언의 단편들을 쫓는다. 총 6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원작의 인물들과 언어를 거의 고스란히 무대 위로 소환한다. 배우의 몸과 소리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연극 형식의 실험으로 옮겨왔던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소설과의 만남이 극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일시 11월 6일(수)~17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오! 늘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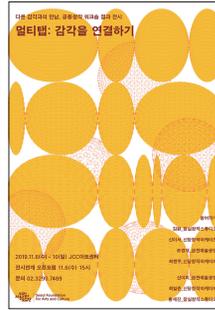
프로젝트 팀 '오! 늘 공장'이 문래동에 위치한 기계금속 가공공장의 노동, 기계, 사람들의 변곡점을 재해석한 다중예술 전시이다.

일시 11월 6일(수)~14일(목)

장소 Space 9(영등포구 경인로 739, 2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다른 감각과의 만남, 공동창작 워크숍 결과
전시 〈멀티탭: 감각을 연결하기〉**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공간(잠실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이 장애×비장애 예술가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표현방식을 넘어 서로 다른 언어, 감각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새로운 창작 방식과 예술적 가치를 탐구한다.

일시 11월 6일(수)~10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JCC아트센터 1, 2층

오프닝_아티스트 토크 및 전시 연계 포럼

6일(수) 오후 3시~5시

JCC아트센터 4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469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노동의 몸짓 : In The Box 쇼케이스〉

노제현 작가가 물류업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오브제 기반의 신체극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일시 11월 7일(목)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힐링데이〉 : 어른을 위한 '어른이 되면 :

시네마 힐링 프로젝트'

매주 목요일, 특별한 영화관에서 총 8주 동안, 8가지 주제로 '영화 감상, 공감 액티비티, 시네 토크'가 열린다.

일시 ~12월 12일(목) 매주 목 1~3회 차 오
후 1시~3시, 4~8회 차 오후 7시~9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4층 스페이스 나눔

참가비 무료

문의 02-943-9300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단행본 <선의 아이들> 출간기념회

우리나라 인디신의 형성과 발전, 변화, 나아가 음악 매체, 시장의 생태계를 아우른 책 <선의 아이들>의 출간기념회가 열린다.

일시 11월 8일(금)

장소 재미공작소(영등포구 도림로 428-1)

참가비 무료(도서 1만 2천 원)

문의 02-2676-4332



2019 서울청년예술단×문래예술공장

선정단체

'자연과 사회' 결과 발표 전시

'자연'과 '사회'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1인 프로덕션 형태로 제작한 영상 작품을 상영 및 전시한다.

일시 11월 8일(금)~10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미정

문의 02-2676-0093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문래 여성의 일>

박소진 작가가 1980년대부터 다방 여성노동자로 일해온 이들의 삶을 통해 여성과 또 다른 여성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본 아카이브 작업을 전시한다.

일시 11월 9일(토)

장소 상진다방(영등포구 도림로 433)

관람료 음료 1잔

문의 02-2676-4332



바스락콘서트 <살롱 드 오페라>

시대별 대표작과 함께 오페라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일시 11월 9일(토) 오후 3시~4시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B2)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6,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활짝연극제>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해 시민 참여형 연극제를 진행한다.

일시 11월 9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900-7766, 4300,

<http://sg.seoulcitizenshall.kr>



한마음살림장 <캐릭터, 아트토이 플라마켓>

한섬스튜디오 × ATA 킷덜트 아트 토이 무료 체험과 전시, 판매 등이 진행된다.

일시 11월 9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6,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무용극 <로미오와 줄리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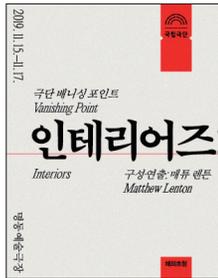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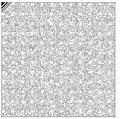
한국과 폴란드의 외교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 시에들체 시립문화재단 소속 카로 댄스시어터의 2019년 기획공연이 열린다. 환상적인 현대무용으로 다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1월 15일(금)~16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3274-8600



연극 <인테리어즈 Interiors>

국립극단이 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기존 연극의 틀을 탈피한 배니싱 포인트(영국 스코틀랜드)의 <인테리어즈 Interiors>를 초청공연으로 선보인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상징주의 대표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인테리어 Intérieur>를 원작으로 재구성된 연극이다. 무대 위 집 안을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집 안 내부의 소리를 직접 들려주지 않고 관찰자의 시점과 목소리를 빌려 관객에게 전달한다.

일시 11월 15일(금)~17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3시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미정
문의 1644-2003, www.ntck.or.kr



2019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평범한 날들>

윤정민 작가는 암 투병 이후 관찰하게 된 평범한 일상과 그 일상적 순간의 감정을 치유로서의 작업 행위 속에서 표현한다.
일시 11월 16일(토)~27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2019 서울청년예술단×연희문학창작촌 <여기는 오디오 극 - 詩로, 서로, 위로>

시(詩)가 가진 여백, 자유로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소리, 전시 등으로 입체감을 더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복합 장르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16일(토)~24일(일) (퍼포먼스데이 16일·23일·24일)
장소 연희문학창작촌
관람료 무료
문의 02-324-4600
진행 단체 신아



삼일로창고극장 기획 프로그램 <창고개방>

'누구나 아무거나 무엇이냐'를 키워드로 2주간 삼일로창고극장을 개방한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아무거나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열린 극장을 콘셉트로 한다. 창작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하며 관객과 창작자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페스티벌이다.

일시 11월 19일(화)~12월 1일(일)
(월 공연 없음, 프로그램별 상세 일정 및 내용은 추후 공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관람료 전석 무료
문의 02-758-2102, www.nsac.or.kr



청소년극 <자전거도둑헬멧쓴소년>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 원작인 이 작품은 1970년대라는 배경을 현재로 각색하고 이 시대 '수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10대 후반의 나이, 청소년과 성인의 과도기에서 사회를 전면으로 마주한 인물들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치열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일시 11월 21일(목)~12월 15일(일)
장소 소극장 판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www.ntck.or.kr



2019 서울청년예술단×문래예술공장 선정단체 '소닉픽션' 결과 발표 공연

'소닉픽션'이 서울을 거대한 '유령의 집'으로 설정하여 서울의 다양한 소리를 채집했다. 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픽션 및 음악을 공연한다.
일시 11월 22일(금)~23일(토)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미정
문의 02-2676-0093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두더지손의 드로잉으로 골목 읽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청과시장인 영등포 영일시장. 김세희 작가가 3개월에 걸쳐 현장에서 드로잉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24일(일)~30일(토)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2019 서울청년예술단×연희문학창작촌

〈시민문학회곡쓰기-나, 반려동물, 우리〉

시인 프로그램 활동과 희곡 집필을 연계하여 희곡이 시민문학으로서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을지 탐구해본다. 시인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매개로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희곡 혹은 다른 문학 장르로 완성하여 낭독회를 개최한다.

일시 11월 24일(일) 전시_ 정오~오후 5시, 낭독회_ 오후 5시(예정)

장소 연희예술극장(서대문구 연희맛로 2-3)

관람료 무료

문의 02-324-4600

진행 단체 크리에이티브나비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트레저 헌터스〉

이정주 작가가 앞서 시민들과 함께한 철 조각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철 조각을 활용하여 스크린 프린팅 작품들을 제작, 전시한다.

일시 11월 26일(화)~30일(토)

장소 라이드앤타이드
(영등포구 도림로 436-7)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2019 서울 상상력발전소 시리즈포럼〉

‘서울몽타주’

서울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도시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조망하고 도시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보는 포럼을 3일간 ‘시리즈’로 운영한다.

일시 11월 27일(수)~29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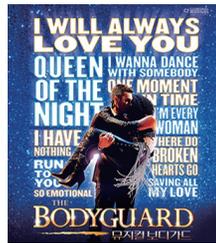
오후 5시~8시 30분

(28일, 29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라이즈호텔 5층 Space홀

관람료 무료(사전 신청 페이지 추후 오픈 예정)

문의 02-758-2075



뮤지컬 〈보디가드〉

영화 〈보디가드〉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2016년 국내 초연에 이어 3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과 함께하는 콘서트형 뮤지컬이다. 최고의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갖춘 톱스타 ‘레이첼 마론’ 역에는 김선영, 손승연, 해나가, 보디가드 ‘프랭크 파머’ 역에는 이동건, 강경준이 캐스팅되어 기대를 모은다.

일시 11월 28일(목)~2020년 2월 23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토요일은 청이좋아 〈만빚청〉

만화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시 11월 30일(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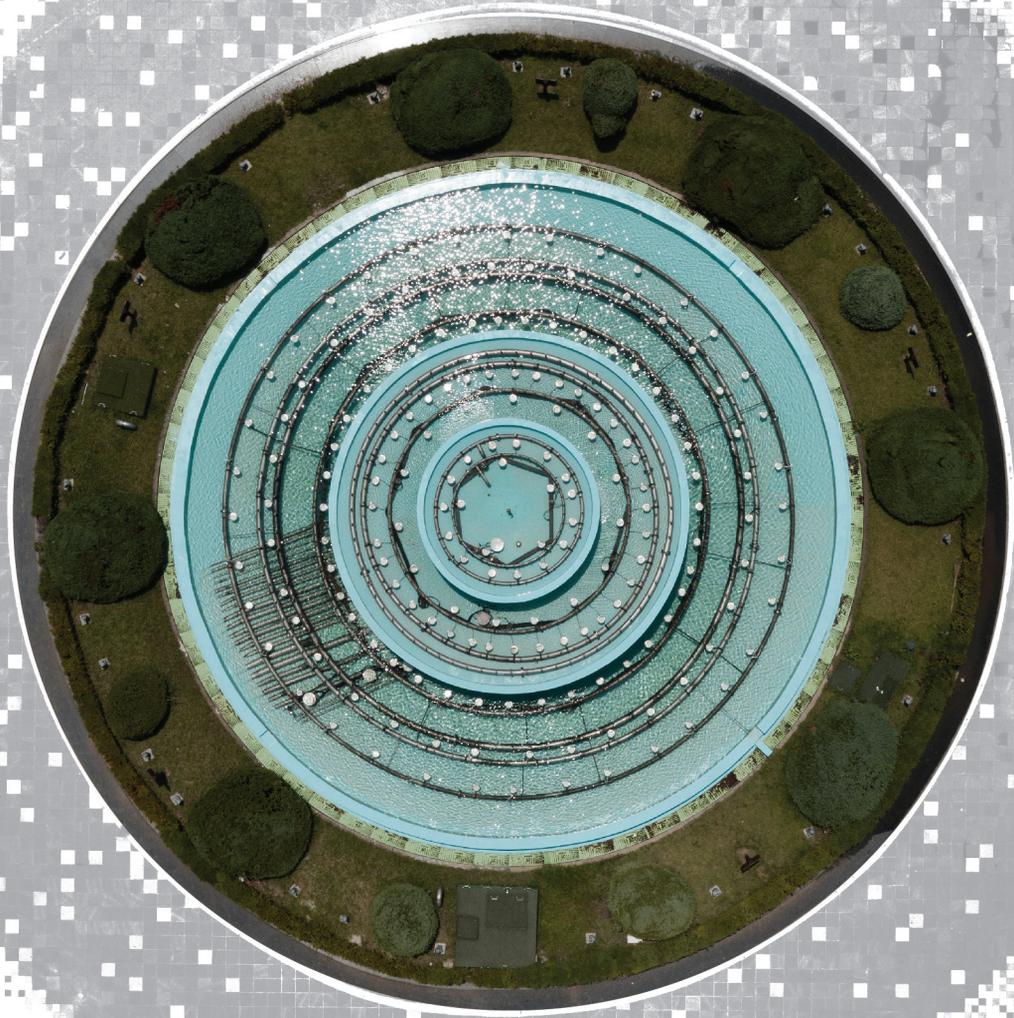
문의 02-739-7331,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남산예술센터
2019 시즌프로그램

오미
시단
자단
공연장작업단
의
의
의

2019.
11.
6.
—
11.
17.



공병준
김도완
김재훈
박선희
배소현
양종욱
최수진
항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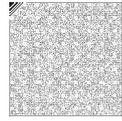
휴먼 푸가

Human Fuga

평일 19:30 토/일 15:00

원작 한강 『소년이 온다』 | 연출 배요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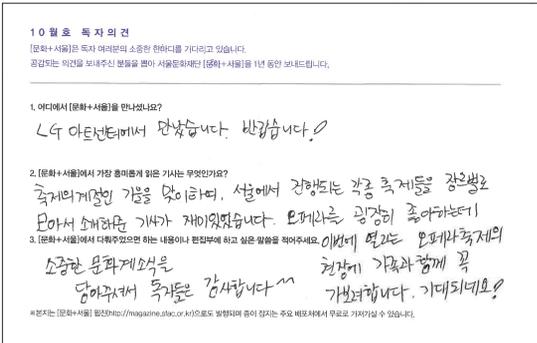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http://magazine.sfac.or.kr>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 엽서

김수영 님(경기도 안양시)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LG아트센터에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축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진행되는 각종 축제들을 장르별로 모아서 소개해준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열리는 오페라축제의 현장에 가족과 함께 꼭 가보려 합니다. 기대되네요!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소중한 문화계 소식을 담아주셔서 독자들은 감사합니다. ^^

편집 후기

행사가 요동치는 10월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불 때, 식욕만큼이나 풍성한 공연, 전시 보기 좋은 계절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데, 방문교 날은 반 갑을 더 피게 된다.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은행 열매 냄새가 싫다가도, 아직 가을이 지나가지 않은 것 같아 좋기도 합니다.

박도욱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수십 번의 재채기와 함께 힘들게 마감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앙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